

第21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8.5.6. ~ 5.8.)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1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261
II.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63
III.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97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353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55
3. 2008년도 사업별 예산 절감계획	35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5월 6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16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5월 6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
4.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일 위원 외 5인 발의)
4.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의장 제의)
5.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 02분 개의)

● 의장 성영용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학신

의사과장 이학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

1. 경과보고

[제216회-제1차 본회의]

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접수에 관한 상황입니다.

2008년 4월 28일 이상일 교육위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날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교육행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신설학교 신축공사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1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

무원출석요구의건 및 신설학교현장방문의 건을 처리하시고, 오후에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5월 7일은 신설 학교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5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청으로부터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05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 외 5인의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이유는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 교육에 관한 주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교육시책에 반영토록하고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일수는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6일 오후 2시와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8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용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상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즉시 집행청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4.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

(11시 08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개교 예정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수용계획과 시설공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를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 교육위원이 2008년 5월 7일 1일간 강서택지개발지구

[제216회-제1차 본회의]

내 청주 서현초등학교의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은 본인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병우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교육행정질문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성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성명용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

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 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23조에서 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하시는 내용은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불철주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본청 간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4월 30일 국민일보와 2008년 5월 1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지역교육청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고, 센터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을 지자체의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센터로 바꾸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리하던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는, 즉, 지역교육청을 시·도교육청에서 분리하여 교육지원센터 형태로 지자체에 흡수 통합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자율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바꾸고 운영 및 기능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매우 우려되고 걱정이 앞섭니다.

시·도교육청의 하부 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이 그동안 지역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모하여 왔고, 또 교육감의 교육방법에 따라 관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지도 감독 및 평생교육기관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가 변경된다면 지역교육청

은 지금의 형태와는 아주 다른 목적이 애매한 기관으로 되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한 지도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권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간으로 이원화 되어 매우 불합리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원화된 기관이 업무 성격에 따라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교육의 일관성이나 관리의 효율적인 면에서 매우 비합리적이고 또한 위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매우 비효율적인 개선안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지만 교육계는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현재 이 제도 개선안에 대한 추진상황, 세부 개선내용을 알려 주시고, 둘째로 이 개선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우리 도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정과제 추진 및 대통령 공약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4월 25일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통령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많은 국정과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농산촌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군 단위 공립학교에 기숙사 건축비를 지원하고, 영어교사 연수를 심화시키는 등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그 기본계획

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많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혹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해야 할 국정과제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그 추진 계획 및 구체적 사업내역을 밝혀주시고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중앙과 자체부담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측이 잘못되어 과잉 투자된 부분도 있고.....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숙사 신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문계고 교장으로서 기숙사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경쟁에 뒤지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고 또 우수학생 유치에 꼭 필요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어 모든 인문고등학교가 경쟁적으로 기숙사 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MB정부에서도 군 단위까지 기숙형 공립고를 만들겠다고 하여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모두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기숙사 운영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지으면 50년의 내구 연한을 갖는

건물이 용도대로 수명을 채운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나 10 내지 20년 후에 교육환경이 바뀐다면 애물단지로 교내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내구 연한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기숙사를 일반교실로 리모델링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그때는 지금보다도 학생이 줄어서 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현 학급수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90년도 출생자가 65만 8,500명 정도였고, 지금 현재 고3에 해당되는 인구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 출생자가 앞으로 고3이 될 그 시기가 17년 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49만 7,000명으로 한 17만명 정도가 작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도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계고 52개교 중 보유하거나 신축 중인 또 예산을 배부 받은 곳을 포함해서 39개로 현재 13개교가 기숙사가 미보유입니다. 이는 결국은 기숙사가 75%의 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청주시에도 70%의 운영율을 보이는 학교가 있고 충주시에도 60%의 운영율을 보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는 예측이 잘못되어 과잉 투자된 부분도 있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기숙사 비용의 부담 능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 단위 기숙형 공립고교 문제도 같습니다. 적정 규모의 투자가 요구되고 운영의 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기숙사 신축의 대안으로 학교주변의 아파트나 공공숙소를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용도가 폐기되면 매각하여 교육재정으로 환원하여 재투자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소재 각급 학교장의 근무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MB정부에서는 실용을 강조하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통폐합이나 공무원 1만명 감축 등 과거 정부에서 키워놓은 몸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계의 인사규정을 보면 청주의 교사들은 8년, 관리자인 교장, 교감은 6년의 근무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규정은 관리자를 20년 정도 하던 시절에 만든 제한 규정으로 현재로서는 제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교장은 관리자이므로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능력이나 의욕 없이 연륜만 강조하는 잔여 근무자에게 근무연한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친 온정주의가 우리 교육계에

서 불합리한 모순에 빠지고 경쟁력을 잃고 있거나 않나 늘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실례로 본 위원이 해당 부서의 자료를 제출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청주시내 중등 46개교 중 6년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이 4명이고 초등학교는 55개 학교 중에서 5명이 해당되어 과거에 비하여 관리자가 노령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젊고 유능한 관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을 넓혀 과감한 발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충북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인사 제도의 도입과 무한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무기간에 관계치 않고 소신 있게 경영철학과 교육관으로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로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근무연한 폐지 의견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영세 사학의 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모 중학교는 2007년도 인건비가 6억 6,900만원, 운영비 1억 3,540만원, 방과 후 수업 운영비 700만원, 사학평가 자구 노력비 300만원 등 총 8억 6,000여 만원

의 결산액이 발생했습니다.

재학생수가 3개 학급에 19명에서 익년 2월말 18명이 되어서 이를 8억 6,000 정도를 18.5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4,949만원으로 1인당 거의 4,950만원의 비용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을 보면 인건비 5억 8,500, 운영비 1억 3,000, 목적사업이 7,340 등 총 7억 3,4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퇴직교사 1명의 인건비 8,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도 표준교육비가 학생수 감소로 1인당 5,650여 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액수는 선진 외국의 사립중학교 연간유학비보다 작지 않은 액수이며 예산 10% 절감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사학 자체의 자구노력이 엿보이지 않고 현재대로 세월만 보내다가 국고만 축내고 없어질 공산이 크다고 본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뼈를 깎는 특단의 자구 회생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신입생이 4명뿐이었다가 3월 5일 2명의 전학으로 현재는 1학년이 2명인 실정으로 2년 8명, 3년 3명 모두 합쳐 총 13명의 재학생에다가 교직원이 14명인 비정상적인 구조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3월 5일 동시에 전학 간 신입생 2명의 전학사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 자신들도 소인수 학급의 우물안에서 경쟁력 없이 성장한다면 본인들 미래에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입니다. 지·덕·체 교육도 중요하지만 상호 인간관계나 자기 관리 능력도 공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는데 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없다면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충남도 공주 가는 길가의 시골 면 단위 학교 한일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든 이유를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온정주의가 사학의 결단을 흐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위의 중학교를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재학생 13명의 하숙비용 4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약 1억 정도, 통학을 택시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택시 4대에 왕복 한 회에 2만원씩 210일 수업일수 플러스 방학기간 중 60일까지 포함을 해줘도 4,320만원 정도면 되고요, 봉고버스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역시 270일 하루 10만원씩 2,700만원 정도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공립중학교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한 수 용계획을 보면 초·중 통합 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하숙비나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곳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중학교의 미래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 3월 5일 전학 간 1학년 학생들의 신상 및 출신교, 전학사유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시 질문했던 남일초 투시형 방음벽 교체 설치에 관한 재 질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남일초와 공군사관학교가 같은 4차선 국도를 이용합니다. 그 도로는 청주 미원보은 상주 간을 잇는 국도로 또 공군사관학교의 임관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 시에도 출입하는 차량이나 각종 인원이 원하지 않아도 남일초등학교 앞을 통과하게 됩니다. 행사 중에는 국내외 VIP뿐 아니라 외교사절도 있고 각 국의 고위 군장성도 참석하는 등 우리 충북교육계로선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남일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이나 내용은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하드웨어인 체육관 겸 강당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신축된 식당동, 과학실, 도서실 등은 자임세의 우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진 충북교육을 외국에도 알릴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투시형으로 담장을 교환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은 국도관리청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그간의 별도의 추진계획이 있었다면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도 저도 한 일이 없다면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남일초 앞을 지나면서 아름답게 단장된 경관을 밖에서 볼 수 있을지 교육감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장공모 시 공모에 응모하는 자격을 갖춘 후보자는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응모자들이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공개로 자신이 작성한 교육 및 경영에 대한 학교장의 비전을 발표하고,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교육감에게 복수로 추천하여 공모제 교장을 선임하는데, 여기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실제로 응모자가 작성 발표한 경영계획서의 내용과 교장의 경영능력이

나 의지가 현격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거나 또는 타인의 계획서 중에서 좋은 부분만 짜집기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번드르한 발표 때문에 옥석을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무사안일의 소극적인 학교경영을 한다고 해도 임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 중임제란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쯤이거나 경쟁지역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의 경쟁지역에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일찍 들어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공모된 교장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현임 공모제 교장들에게 일정기간마다 자기 평가서를 제출 받아서 경영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초·중·고 중 잘된 것만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도 또는 국가단위로 초빙공모 교장의 업무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었다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교장 초빙공모제가 벌써 8년여가 되도록 시·도 또는 국가단위의 평가기준 자체가 없었다면 시급히

기준자체를 조사 연구하여 작성 시행하여야 할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 항목이나 내용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잘못 선임된 공모교장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제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서 나머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우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예년보다 황사가 더욱 잦고 심할 거라는 올해 우리 주변에는 그 황사보다 더욱 짙고 어두운 회오리가 돌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과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휩쓴 정부여당이 쏟아내는 각 부문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어지럽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학교시장화 정책들은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산야엔 꽃들이 피고 신록이 푸르러 가

도 아이들의 교실에는 생기가 없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가슴에 드리운 그들은 날로 길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만이라도 교육적 소명을 더욱 가다듬어서 백년지대계의 근본을 지탱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행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과부에 4.15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접하고 먼저 자율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율화 조치는 확대될수록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 후에는 어떤 일인지 우려와 반발이 들끓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지나친 교육 지배나 간섭을 반대해 왔던 전교조나 심지어는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고까지 주장하던 시민단체들이 저토록 반대하는 것은 일견 아이러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조치가 안고 있는, 본질과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아무리 규제보다 자율이 좋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규제가 죄다 철폐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거리의 신호등조차 자유로운 보행을 바라는 쪽에서는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공공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어장치입니다.

이번 조치의 29개 지침 중에서 상당수도 사실은 그동안 공교육의 신호등이요 안전핀 구실을 해 온 최소한의 규제였습니다.

그 지침들이 거추장스런 전봇대인양 뽑혀나가도 정말 아무런 걱정을 말아도 되는 걸까요? 광우병 소고기를 들여오더라도 국민 각자가 먹든 말든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니 교육 관련 지침을 없애도 학교자율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일주일이 넘게 곡기를 끊은 채 한뼉잠을 자면서 위험성을 알리려고 몸부림 하듯 하고 있는 전교조 위원장과 충북지부장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두 가지 사안에서 똑같습니다.

무분별한 소고기 수입 개방 앞에 본능적으로 광우병 공포를 느끼고 갑작스런 학교자율화 조치 앞에 공교육 황폐화의 두려움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의 후속조치를 보면서 권한 위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적절한 권한 배분과 효과적인 위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구어냅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이기용 교육감께서는 역대 충북 교육감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위임형 리더십으로 교육일선의 자발적 동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속조치를 보니까 아예 전국에서도 가장 과감하고도 전폭적인 위임조치를 단행해서 전국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권한과 책임을 일선 학교로 위임하는 것을 넘어 지도 감독청으로서의 역할을 방기나 포기, 또는 책임전가로 비칠 소지도 다분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상에게 하는 위임은 내맡기기이며, 충분한 상의 없이 하는 위임은 떠넘기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자율권을 위임받게 될 학교는 과연 제대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준이 되어 있는지.

과연 충북의 학교들은 전국에서 가장

자율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는지 하는 데 대한 충분한 점검과 확신 없이 그저 중앙정부 방침이니까 무조건 이행을 높게 따르자 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역시 핫바지 시범 도라는 조롱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겨드랑이가 가렵더라도 거북이는 벌나비의 날개짓을 흉내낼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논리가 판을 친다고 해도 교육자가 시장바닥 엇장수의 노하우를 빌려서 교육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장마당에서의 자율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엇장수 맘대로를 말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 제 나름껏 팔아서 깎냥껏 남기는 것이 시장의 자율입니다. 그런 자율관을 교육 현장에 들여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란 말이 그런 데를 이르는 말일 겁니다.

해서 이제 저는 그런 차원의 염려들을 담아서 이번 조치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의 4.15조치 자체부터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도교육청의 후속조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례적인 절차는 거치는 듯이 했지만 속된 말로 물어는 보고 결정은 맘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의견을 물어는 보

았죠. 그런데 그저 요식절차일 뿐이었던 거죠?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하고 감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조치의 실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일선학교의 특히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은 또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했는지, 그리고 요즘 강력 반발하는 단체들의 의견은 사전에 물어는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침들 중에서 특별히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들이 추후에 현실화될 경우 지도 감독 관청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충돌하는 사항들이 우려스러운데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율이라는 명분도 단위학교 자치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와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장 자율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 우려하는 측의 시각입니다.

교과부나 도교육청 차원의 지침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 또는 국회나 교육위원회의 견제와 협의 등을 통해서 조율될 수 있지만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지면 학교장의 전횡을 낳거나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매우 큼니다. 과제는

많은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같은 학교 자치를 정비할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 교육공약의 하나인 고교 다양화 300을 우리 지역에 적용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 10% 절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10% 절감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용 문건을 굳이 수고스럽게도 요약본으로만 들어 주셨더군요. 그런데 실은 세세한 항목이 더 궁금하니까 교과부에 올린 그대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재원으로 공약 실현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100억이니 200 몇 십억이니 해서 관련 예산 배정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곽정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두셨던 내용입니다만은 기숙형 공립고와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학생 80%를 입주시키는 기숙형 공립고

150은 교육감님의 1군 1개 기숙형 고교 설립 공약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농산촌 우수교로 지정 육성하고 있는 학교들의 기숙 시설을 확충하면 실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기에 도리어 더 걱정입니다.

80%의 학생들을 수용하려면 공부하는 교실보다 더 큰 용적의 기숙 시설을 지어야 할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이나 하며 필요는 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짓고 난 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관리 운영의 문제, 또한, 일부 학교는 현재도 입소희망이 적어서 정원 채우기도 힘든 현실 등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와 관련한 애로나 고충 등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고 40, 영재학교 10, 자율형 사립고 100, 이것에 대한 도내 적용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가 청주시내에 허용될 경우에 평준화의 틀을 위협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300에 제외되는 고등학교들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비 10%를 지원하는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300 대상 학교들과 비교할 때 교육격차 유발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셋째, 고입연합고사 실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지난 선거에서 고입연합고사 병행실시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셔서 전문 연구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뒤에 결과를 봐서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가 되자 아예 실시를 기정 사실화하는 언급을 하심으로써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검증이 되어야 할 연구조차 요식행위로 그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대학 연구소들은 그에 대한 부담감으로 용역 수임을 꺼렸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애초 제기하신 바처럼 연합고사 병행의 필요성은 오직 학력신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과의 상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교육 파행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위태로운 실험을 강행해선 안 됩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부산광역시 교육청도 작년도에 같은 취지의 연구를 의뢰한 결과 찬성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력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획을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뢰기관의 연구 결과를 볼 것도 없이 우리 도의 2011년 병행실시는 교육감님의 의지로 이

미 확정된 것인지 그 유무를 분명히 해주시고, 또한, 연구기관에 의뢰한 용역의 성격과 검증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추진 일정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공사립 교원 정원 및 사립교원의 신규 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원 정원 문제는 교사들의 수업부담뿐 아니라 수업의 질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학교자율화 2단계 조치를 통해서 교원정원관리 권한의 시·도 이양 등 관련 내용이 정비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현재 87.3%에 머물고 있는 우리 도의 교원정원 확보율을 높일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우리 도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책정 기준과 또 초·중등 및 공사립간 격차 조율방안 등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사립학교 교원임용 현황을 파악해 본 바, 사학들의 정원내 기간제 채용과 같은 편법적인 관행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학들이 신규임용 시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착오 내지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점검해 보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사안들

에 대한 지도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중·고생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가운데 학교 일과생활에 까지 그 후유증이 남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 등을 파악한 바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 대한 노동교육의 필요성은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고, 특히 전문계고 현장 실습을 떠나기 전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과 실업학교 관리자 및 취업 담당교사들에 대한 관련 연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인식, 그리고 도교육청의 실적이나 계획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에 없었지만 꼭 하나 짚을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발 쇠고기 괴담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쓰이기 쉬운 곳이기도 학교급식일 것이라는 불길한 예상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넘어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씻어줄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하고자 합니

다.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부웅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주변의 모든 인물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큰 틀의 교육사업을 당당히 추진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충북교육의 밝은 앞날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보좌해 주시는 김효겸 부교육감님, 김종근 교육국장님과 이장길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의회 때마다 본인이 건의하는 행정제도 문제, 예산과 인사 문제, 일선의 교육활동 문제, 시설관리 문제 등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리면서, 저는 작지만 그냥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일선의 이야기를 직접 공무원들과 접촉하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곽정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초빙제 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성공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만족도를 밝혀주시고 향후 현행대로 운영할 것인지, 또는 확대 실시나 축소 실시 등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과후 교육활동과 평생학습 지원 문제, 보육교실 운영 등에서 일선에서는 학습대상자 확보와 교육분야 선정, 강사확보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점과 그 보완방법을 밝혀주시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건이 형성된 학교로 축소 운영하는 게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유아교육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에 에듀케어반 운영의 현황과 운영을 희망하는 곳에 100% 수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희망하는 모든 유치원에 확대 실시할 의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합 놀이기구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오래되고 낡은 기구가 많이 있는데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교체가 요구됩니다.

예산에는 없다고 하나 시급히 교체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단설유치원 확대 설치해서 사립유치원과의 갈등이 적고 유아자원이 충분한 진천지역에 상산병설유치원과 삼수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네 번째, 학생회관의 사업 중 '07년 9월부터 5개 학교에 지원한 바 있는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이 있는데 일선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사가 아닌 기능직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데 정규교사의 파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 청소를 외부용역에 맡기고 있다보니 학생들이 청소하는 일을 기피하고 있는데 교육의 일환이며 봉사를 배운다는 목적으로 평소에는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1개월에 2번 정도의 용역을 받도록 예산을 대폭 줄일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 번째,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영에서 급식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인력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이겠으나 일선의 영양교사들을 차출해서 점검에 투입하는 방법은 학교장과 영양교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여러 학교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서 부실한 점검과 소속 학교의 부실한 운영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소책

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교원들의 업무가 많이 개선돼서 잡무가 줄어들었지만 타 기관에서 유입되는 문서와 교육청을 통해 이첩되는 공문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공문 이외에는 이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선의 의견을 전하면서 함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업무 개시를 기회로 직속기관간의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행사를 위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가자고 몇 번인가 본인이 말씀드렸는데 추진되고 있다면 그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설관리에서 해마다 막대한 수리비를 들어가며 사택수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과 미사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근의 아파트 구입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문닫은 학교의 유지 관리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임대가 곤란하고 교육시설로는 재사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폐교는 건물을 과감히 철거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제216회-제1차 본회의]

열 번째, 소규모농촌학교의 통폐합 시 운영되는 통학버스의 운영 문제에서 3명의 통학을 위해 버스 1대가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 60인 이하 학교의 대부분을 택시사업소에 위탁해서 통학을 실시하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열한 번째, 광정수 위원님이 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지원문제입니다.

재단이 열악하여 어려운 곳은 지원을 통해서라도 공립 수준의 교육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견실한 재단이 운영자로 있으면서 자구노력 없이 지원만을 바라는 사학에도 막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식의 대응투자 형식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열두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현행 일반직 5급 승진제도를 보면 시험과 추천의 2가지를 병행해 능력 있는 공무원과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고르게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일부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든 입맛에 맞는 제도는 없겠으나 한시적이나마 동일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성실히 근무한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보자는 의견도 있는

데, 물론 부작용도 있을 듯하나 3진 아웃제와 균형있게 운영하면 적체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겠다는 본인의 생각인데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서직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5급에서 22년, 6급에서 25년, 7급 15년이 경과되어도 승진될 기미가 없어서 의욕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나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은 지역의 도서관장 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정책대학원 교육파견 등에도 사서직도 포함시켜주길 바라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요?

시설직공무원들도 학생교육문화회관에 5급직의 보임 시 사기진작을 위해 임용을 원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지요?

보건직공무원들은 보건사무관을 행정직 또는 식품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해놓고 보건직은 식품직으로 갈 수 없게 되어 형평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끝으로 교육지원센터 이야기를 광정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에서 뵈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성영용

김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습니
다.

15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의장 성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서수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용 위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앞서 위원들이 다
한 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수용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 환경오염도 측정과 관
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과 14796호 2007년 10월 25일
자에 의거 각 시·군교육청 별로 관내학
교에 지시된 2007년도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철저라는 공문에 따르면 학교 자체
공기질 측정계획 학교 중 미실시 학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측정을 완료하고 결과
를 분석 평가하여 적정기준이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
기 바라며, 2007 학교 교사내 공기질 측

정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건
강을 도모한다는 방침에는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행정절차나 운영상
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점검 항목에 따라
계절별로 1회 내지 4회 이상 교육청 또는
외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
록 되어 있는데 2007년에 과연 교육청이
점검해 준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와 실
적이 없었거나 미흡했다면 그 이유를 밝
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학교교사 내
공기질 측정을 위하여 대당 2,500만원 상
당의 고가 측정 장비를 시·군 교육청에
이미 구비 완료했으나 거의 활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대다수
학교는 60만원에서 110만원까지의 검사비
를 들여 외부업체에 의뢰하고 있으니 이
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행정의 합리성면
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3억여원이나 투자하여 구입한
측정장비를 인력이나 시간 부족의 이유를
핑계삼아 방치한 채 학교별로 검사용역비
를 매년 낭비케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교육
감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모 검사기관 한 곳에만

의뢰한 학교가 130개교였습니다. 검사비도 1억원이 넘었습니다. 만약 도내 모든 학교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게 한다면 장비구입비 3억원을 매년 지불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시·군교육청 별로 구비된 측정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청 직원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 행정질문을 전후해서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도 들면서, 그 이외에도 가끔 밤늦게 본청을 들려보면 분야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사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주말까지 반납하며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에 따라 다르고 업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지만 불요불급한 사안이나 시기에 따라 피치 못해 하는 근무라면 몰라도 거의 매일 해야 하는 초과근무라면 고생이 많다거나 수고한다며 넘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보고 그 내용과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을 격려 칭찬하거나 보상도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 혁신 차원에서 행정적 배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혹시 상급자가 남아있

는 사무실을 떠나기 거북해서 필요보다 눈치치레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오히려 능률면에서 볼 때 주어진 시간이나 약간의 초과시간 그리고 재택 활동 등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직원을 찾아 모델화함으로써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근무분위기나 스스로 알아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평가받는 그래서 정말 필요에 의해 야근도 하고 휴일 근무도 하는 직원들의 자발성과 근무성과에 따른 격려와 보상이 새로운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어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면서도 근무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과의 초과근무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는 장학관의 경우 초등은 한 사람 평균 약 262.5시간, 중등은 약 193시간을 근무했으며, 장학사의 경우 초등은 297.4시간, 중등은 143.5시간을, 일반직의 경우는 초등이 214.3시간, 중등교육과는 14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과에 따른 초과근무 차이도 있지만 장학관의 경우 개인에 따라 네 배 이상 근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학사의 경우도 약 3.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불평등의 소지나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직 교육공무원 성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여성 교원의 비율은 초등이 75.2%, 중등 52.5%이며, 이 중 교감의 경우는 초등이 14.7%, 중등 8.7%, 교장은 초등 6%, 중등 9.5%에 불과하지만 장학사의 경우는 초등이 44.9%, 중등이 23.8%인데 비해서 장학연구관의 경우는 초등 13.6%, 중등 6.9%이고, 특히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의 경우에는 초·중등 합해서 단 1명에 불과해 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공채시험이 실시된 이후 그 비율이 높아진 것에 비해서 상위 전문직의 경우는 불균형이 극심한 데 대한 불만의 소리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고의 여지는 정말 없는 건지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치원의 교단선진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단설유치원이 멋스런 건축물로 속속 개원되는 등 발전하는 유아교육의 모습을 보면서 유아 수업 현장의 교단 선진화 또한 그에 걸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현장의 유치원 선생님들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용도 폐기된 선진화 물품을 사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권하는 교장선생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뿐아니라 유치원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됐다고 용도 폐기하는 그런 초등학교와 균형을 맞추어서 함께 선진화를 이루실 생각은 없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연구학교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서 운영되는 연구학교 수는 초등이 80개교, 중등학교가 고등학교 포함해서 114개교, 총 194개교인데 교생 실습 협력 학교까지 포함하면 200개교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학교를 공모에 의해서 지정하는 연구학교이다보니까 경합이 높은 만큼 선정과정에 관심 또한 많아서 2월 말경에나 발표되는 선정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당해 학교의 추진일정과 연구의 성과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연구학교의 확정 발표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구요,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쏠림현상을 걱정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연구성과에 바람직한지 한번 의미있게 걱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 교육의 지표와 창조적인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통해서 학력신장에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 충북교육은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날로 발전하고 있어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

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가족, 모든 국민들의 대단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3월 6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 3월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충남, 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 개인별 점수, 해당 지역 평균점수가 포함된 성적표를 각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통지했습니다.

성적표에는 해당 학교와 시·도 내 석차 백분율뿐만 아니라 각 학교와 시·도의 평균점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수학과 영어 과목에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분석을 해보면 대전은 국어와 사회과목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광주시는 수학, 과학 성적이 전국 1위입니다. 서울은 영어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과목의 광주시 평균이 85.9점으로 울산 평균 79점보다 6.9점 높았습니다. 과학과목의 광주 평균점수가 81.2점, 서울의 76점보다

5.2점이나 높았습니다. 영어는 서울 평균이 87점에 충남 평균 76점보다 11점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내에서도 강남 지역 모 중학교 5개 과목 평균점수가 461점이고, 특히 영어는 98점으로 1학년 생 절반 이상이 100 만점을 받았습니다. 강북의 모 중학교는 5개 과목 총점이 408점이고, 영어평균은 80점으로 강남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평가의 실시 목적이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점검하고 학력미달자를 구별해서 미달자에 대한 기초학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현실에서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 공개는 금지시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시험경쟁으로 내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고 있는 학교간 학생간 격차를 감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진단평가에서 보듯이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의 평균점수가 영어를 제외하고는 지방보다 낮았고, 서울의 상당수 자치구들

의 성적이 전국 시·도 중 하위로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학력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첫째로 지역교육청의 학력신장을 위한 열의가 얼마나 있느냐, 둘째로 교사들의 역량과 열성이 있느냐, 셋째로 학부모의 교육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격차의 원인은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과 학부모의 경제력만으로 풀려고 하는 생각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과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탓이라면 지방의 평균성적이 지방보다 높게 나온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충북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개별 성적만 통보하고, 도 단위 및 개별학교 평균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타 시·도처럼 공개해서 성적이 떨어진 학교에 대한 예산 및 우수 교사 배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학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이제까지 학생, 학부모만 피나게 경쟁했지 학교는 경쟁한 일이 없다. 선생님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학교간, 교사와 교사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진단평가 결과 분석한 뒤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2009년부터는 진단평가 성적을 공개해서 학교간, 교사간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근래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5일 초·중·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 날자로 즉시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은 6월 중에 대폭 정비하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지시 감독의 근거가 되었던 초·중등교육법 7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됩니다.

폐지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 보충수업 운영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교과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그리고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이 폐지됩니다.

둘째로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침, 학교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지침도 없어집니다.

셋째로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자율화되고 방과후 학교의 영리단체인 학원 강사도 초빙되어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넷째,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되고, 그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육부장관의 권한이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됩니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1차적 최종적인 책임 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에게 전면 이양하고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학칙 개정에서부터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 시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의 재량권을 준 뒤 실력 있는 우수한 학교로

만들게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학교와 교사가 변해야 하고, 변화의 중심에 교장선생님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장은 단순한 학교 관리자에만 머물지 말고 역량을 발휘해서 실력 있는 학생, 건강하고 예의바른 학생으로 키울 수 있는 학교 CEO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을 보면서 감명 깊은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계 미국인 미셸 리 교육감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질에 달렸다. 교사가 바뀌면 학생도 바뀐다는 것이 미셸 리 교육감님의 지론입니다.

워싱턴 DC는 150개 공립학교와 교직원 수가 1만 5,000명, 교육예산이 연간 33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의 실패로 학생이 계속 줄어들어서 5만 6,000명이 넘던 학생이 4만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정책의 실패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가 돼서 우수한 학생과 경제력이 우수한 가정의 학부모들이 학생을 교육여건이 좋고 실력 있는 학교로 진출을 시킨 것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 과감한 교육행정을 폈던 한국계 미셸 리 교육감을 발탁을 해서 교육정책을 맡겼습니다.

이 교육감은 성적이 나쁜 학교 23개교를 폐교 조치했다고 합니다. 학교장 30%를 교체하면서까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워싱턴 DC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쭉쭉 올라가자 주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재정지원을 해서 교육감을 지원하고 워싱턴 DC 학생들의 성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운영의 자율화와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추진에 대한 우리도교육청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아마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추진계획과 이 추진에 따른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성명용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무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푸르름이 더해가고 어제가 여름으로 들어간다는 입하인걸 보면 한여름 속으로 성큼 다가가는 기분입니다.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맞아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서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자 불철주야로 교육적 열정을 바치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 1만 7천여 교육가족 여러분께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영어 몰입교육 문제로 혼란이 야기되었는가 하면 지난달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우리 교육계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서 신년사를 통하여 발표하신 내용과 지난달 30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신년사에서 첫 번째 약속으로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학력신장은 훌륭한 교실수업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수업기술이 뛰어난 최고의 수업 명장 선생님을 만나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업스타를 발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스타는 바로 학력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스타가 되는 것은 교사들에게 평생 최고의 명예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한층 격상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리스트를 국민적 영웅으로 추대하듯이 수업스타를 교사들의 영웅으로 부각시켜야 모든 교사들이 수업스타가 되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업스타의 처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력신장은 훌륭한 교실수업에 있다고 보고 해마다 수업스타를 발굴하고 있는데 더욱 매력 있게 하려면 지금보다도 더 파격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유치원 원감, 초·중등 교감 연수대상자 중 수업스타 교사가 몇 명이나 포함되었는지 전체 대비로 알려주시고, 10%미만일 때 부진한 원인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스타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문직이나 수석교사를 선발할 때 자격요건으로 수업스타 인증자라는 문구를 넣어서 선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 기본학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3월 말 현재 한글 미해독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2학년부터 9학년까지 학년별 재적수 대비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해독자 구제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한글 미해독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고,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에게는 책무성을 강화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초학습수당을 신설할 방법은 없는지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기본이 바로선 학생생활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가운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짐대회, 홍보물, 각종 연수 등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전시성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영어몰입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정부에서 예고한 영어몰입 교육의 열풍으로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영어교육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어느 가정은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인지, 몇몇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전국의 학생들 영어를 잘하게 해야 하는지? 한국어로도 수업을 잘 못 이해하는데 과연 영어로 하는 수업이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영어몰입 교육정책에 대비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 충북에 있는 중·고등학교 영어과목 담당 교사 중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는 몇 명이나 있는지 전체 대비 알고 싶습니다.

또 덧붙여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어몰입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력은 있지만 자격이 없는 무자격 영어교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영어몰입 교육정책이 언젠가

는 시행된다고 볼 때 그 대비방안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별 영어캠프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어교육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별로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지역교육청이 4박 5일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는 바람직하나 영어능력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획기적인 캠프운영을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20일 이상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가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초·중등교사 과학과 실험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초·중등 과학과 실험연수는 교사들의 실험·실습 지도능력 배양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과 과학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과학과 실험연수를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경과기간이 지난 교사를 상대로 실험수업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탐구실험 중심의 연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등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초등의 경우 전교사-보건 및 영양교사 제외하고-상대로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청주나 충주시 같은 경우는 교사 수는 많고 연수 운영반 수는 적어 15년 가까이 되어야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수를 받고 싶어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 초등교사가 약 1,900명인데 연수대상자는 3개 반에 120명이고 충주시는 초등교사가 약 600명에 1개반 교직원 40명이니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본 위원 이 교사 시절부터 실시했던 연수로 기억

나는데 근 3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 평균 재교육 기간은 몇 년 정도 되는지, 또 지역교육청 교사 현황에 따라 연수반 수를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조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방과후 학교운영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의 특기와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이 과연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학생들의 특기가 다양하고 학력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자기에 맞는 특기, 자기에 맞는 학력을 찾아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과도한 공교육 속의 사교육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생들이 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은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직접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시간에 쫓기는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켜서 언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지 시간이 날 때만 가르친다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문제 학생들을 상담하는 등 말 그대로 배움터를 지켜주는 분들을 해마다 늘려 몇 년 안에 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배치된 학교수와 내년도에 배치될 전망과 배움터지킴이의 자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는 어떻게 하며, 한달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교원 출신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 대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임 하신 교원 중 아직도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서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싶은 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퇴임하신 교원들의 일자리 창출 검 학

교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교육감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해외여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경상북도로 학사시찰을 나갔다가 그 지역 일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학여행 양극화 심각이라는 제하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해외여행 자제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교생 해외여행은 공립학교보다는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에 이미 다녀왔거나 계획중인 학교가 도 전체에서 8개 학교라고 합니다.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부모 부담은 물론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다녀온 일부 고교생들의 성매매 파문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에서는 국외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나 실시한 학교는 몇 학교인지, 있다면 우리 교육청의 고등학교 해외여행 지침은 마련되어 있는지, 고교생 국외 여행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농산촌 학교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면 1개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촌 인구가 날이 갈수록 급감하여 지금 초등학교 1학년생이 6학년쯤이면 옥천군의 경우 50명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옥천군의 경우를 추정할 때 11개 읍·면 중 6개 면은 30명 이하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1면 1교는 유지되는지 알고 싶고, 농산촌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가 비교적 멀어 등교할 때는 대부분 부모님의 차량-농가에도 트럭이 있습니다-그것을 하고 있는데 하교할 때는 부모님이 일손이 바빠 오지 못하니 학원을 보내고 학원이 끝나면 학원차가 집까지 하교시켜 주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하교를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 중식을 3교대 이상 급식하고 있는 학교수와 전체 대비를 말씀해 주시고 연차별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여학생이 있는 학교는 남학생에 비하여 식사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

선 투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으로 다가능 오븐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00명 이상인 학교에 40단 기준으로 2,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일선 학교에서 작동하기 간편한 외국산은 3,500만원 이상으로 값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단짜리 외국산을 사든지, 아니면 사용방법이 복잡한 국산 제품을 예산에 맞춰서 사놓기는 하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재정이 열악한 줄은 알지만 투자한 예산이 일선 학교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급식용 정부미는 2007년도 생산된 특등과 1등의 벼만 도정한 쌀로 시중 일반미와 같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중가격의 60% 정도로 저렴하게 학교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양곡은 학교급식에 있어 중식과 기숙사가 있는 학교급식에만 공급되지 중식과 석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석식용 쌀은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가 없는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

교에서는 밤 10시까지 자율학습 관계로 석식이 불가피한데 규정에 묶여 같은 쌀을 40% 더 주고 일반미로 구입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아는데, 각 시·군의 급식비 지원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장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공정하게 잘한다고 해도 해놓고 보면 꼭 말이 많은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2개 시·군 11개 지역교육청 중 거의 모든 교육청이 초등, 중등 출신을 고루 번갈아 교육장을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주교육청은 중등 출신만 청원교육청은 초등 출신만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교육감들께서 왜 단행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또 본 위원은 역대 교육감들께서 초등을 비하한 처사가

[제216회-제1차 본회의]

아닌가 생각합니다.

덕장으로 소문난 이기용 교육감님의 지역교육장 인사, 특히 청주, 청원과 기타 지역에 대하여도 교육장 순환 임명에 대한 마인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교육장 임기가 거의 1년으로 되어가는 추세인데 일부에서는 전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용 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선심용으로 할 바에야 6개월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억지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육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교육장의 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문제의 요점에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희,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별첨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5월 8일 (목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시되,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성영용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26만여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8만여 충북교육가족은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이라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가족 모두의 뜻으로 인식하고,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 사항은 부교육감과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광정수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추진에 관한 제도 개선 내용과 교육감의 견해,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5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정안에는 명칭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운

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지역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 5월 1일자로 지역교육지원센터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조례 제정 지침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나 시행령 및 조례 제정 지침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및 타 시·도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고, 지방교육행정 조직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께서 고입연합고사 실시 확정 방침, 연구용역의 목적, 절차,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고사 실시와 관련해서 확정된 방침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고입 전형제도 개선 방향은 내신제 전형의 장

점은 살리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내신제 전형과 연합고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향으로 연합고사 도입에 관한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단위의 타 시도 9곳 중 7곳은 이미 연합고사를 시행하고 있고, 충북과 경남이 올해 뒤늦게 이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에서 개선의 방향이 연합고사 도입 쪽으로 검증되면 보완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의 목적은 현행 고등학교 입학 전형 개선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함이며, 연구용역 기관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전국단위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였고, 현재 한국교육학회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연구용역의 절차는 계획에서 계약 체결까지 모든 절차를 밟아 공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조달청 공모를 통해 요청한 제안 내용은 현행 고입전형 방법의 문제점 검토와, 연합고사 도입의 타당성 검증, 그리고 합리적 시행 방안 연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연합고사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

해서 과목 선정과 과목별 출제 문항수, 그리고 배점 등의 연구도 요청하였고, 아울러 현행 고입전형 내신성적 산출 방법의 합리적인 방안도 함께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연구는 선정된 용역업체의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전문가협의회, 설문조사, 그리고 공청회 등의 방법을 거쳐 11월 말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용역업체에서 요청하는 행정적 업무에 관한 사항에만 협조하게 되고 업체에서 제출하는 최종 결과에 따라 11월 말 이후에 세부 추진일정을 계획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부용 위원님께서 초빙교장제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셨으나 동료 위원이신곽정수 위원님과 정무 위원님의 교장공모제 질문과 내용이 같아 초빙교장제 시행현황, 선정,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빙교장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범 운영 계획에 따라 2001년 3월 초빙교장제에서 2006년 3월 1일 교장초빙공모제로 바뀌었고, 2007년 9월 1일 이후에는 교장공모제 등으로 변경하여 현재 교장공

모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는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현황은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23개교에서 초빙교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의 활성화를 위해 서원고 등 도시 지역 5개교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 선정은 학교와 지역 사회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제도에 부합하게 학교 및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장공모제 학교를 지정하고 있으며 공모 교장 선정 시에 1차 서류 전형, 2차 심층 실사, 3차 학운위 심사 등을 거쳐 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장이 임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교장공모제에 무자격 교장이 선정된 경우가 없었으므로 교장공모제로 인해 현행 교장 승진제도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공모제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교운영 상황 보고서를 제출 받아 교장공모제 학교 경영을 점검하여 초빙교장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 교장 평가 방안을 개발하고 있는 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교장평가 방안이 확정

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영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책임경영 이행 여부에 평가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운영 결과, 창의적이며 열정적인 학교경영으로 학교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이 증진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은 수정초는 21세기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하여 농산어촌형 모델학교로서 방과후 학교와 밤에도 열린 학교 운영으로 하루 14시간 보육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보은 산외초는 아름다운 학교로 가꾸었음을 물론, 특기·신장 교육, 학력 신장 교육을 잘하여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로 발전하였으며, 오창 청원고는 국토순례 체험행진 등 인성교육 강화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등을 통하여 개교 2년만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은 농촌지역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교장공모제 추진에 있어 정부의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 정책에 맞추어 교장공모제 시범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교장공모제의 심사과정을 강화하여 임기와 관련 없이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용 위원님께서 관리직 공무원 성비의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여성 관리자 확대 임용을 위하여 2007년도 상위 전문직에 여성을 2명 임용하였으며 2008년 4월 1일 현재 도내 여성 교장의 비율 7.3%에 비하여 여성 보직 장학관 비율은 10%로 낮은 편은 아니나, 특히, 관리직 경력 3년 이상인 여성 중 장학관은 33.3%로 높은 편입니다.

향후 여성 관리자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여성의 상위 전문직 확대 임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 중1 진단평가 결과 성적 미흡 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 학력신장 대책, 결과 공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실시된 진단평가의 목적은 개인별 학업성취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 자신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모색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한 학생 성적통지표에는 과목별 원 점수, 등급 및 도 평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도 차원에서 학생

간, 학교간, 지역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학생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진단평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현행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어 공개할 수 없으며, 타시·도의 경우도 직접 공개한 것은 아니나, 학생 개인통지표를 근거로 사교육 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합의하여 결정 시행할 것이며, 진단 결과 미 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보충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과교육 시간을 통해 지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 위원님께서 교육장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적 식견과 행정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초·중등 구별 없이 교육발전과 화합을 이루어 교육행정을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 임용하여 왔습니다.

교육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제216회-제2차 본회의]

않으며 교육발전과 화합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대상자의 정년을 고려하여 적정기간 임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효겸

부교육감 김효겸입니다.

먼저곽정수 위원님께서 청주시 소재 각급 학교 교장의 근무연한 폐지에 따른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합 지역의 순환 근무를 위하여 근무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근무 만료 제한 연한이 교장, 교감은 6년, 교사는 8년인데 학교장만 근무제한 연한을 폐지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제안하신 청주시 학교장의 근무만료 제한 연한 폐지에 대하여는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무연한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께서 대통령 교육공약의 하나인 고교 다양화 300 등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기속형 공립고교, 마이스터고, 자립형 사립고,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부담 없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초 예산액의 1.1%에 해당하는 152억원을 절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절감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경상비와 불필요한 초과근무 억제 및 연가 실시 권장 등을 통한 인건비와 시설비 집행 후 발생하는 낙찰차액 등이 주요 절감대상이며,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비롯한 학교회계전출금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은 절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각급 학교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은 절감재원 152억원과 국정과제 추진 교부금 322억원을 비롯하여 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도 세출예산 10% 절감계획은

붙임과 같습니다.

▶ 참 조 : 2008년도사업별예산절감계획
(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고교 다양화 300 과제 중 기숙형 공립고교와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정, 자율형 사립고 추진 시 지역 적용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숙형 공립고교는 2008년에서 2009년도 중에 군 지역과 도농 복합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150개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에 1군 1교, 농촌 우수학교 중심으로 9개교, 2009년도에 도농 복합 시 지역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1개 일반계고등학교를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별 전체 학생의 80%를 기숙사에 수용한다는 계획은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이었으나 학부모의 기숙사비 부담, 기숙사 운영에 따른 교직원 업무 과중, 생활지도 등 학생 관리와 장기적 관점에서 기숙사 지속 운영 여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숙사 정원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숙형 공립고교 추진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별 학생수 추

이와 학생들의 입사 희망 등 소요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기숙사 운영 효과를 고려하여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겠으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기숙형 공립고교 운영 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최고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학교로 전국적으로 전문계고 50개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에서는 2개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 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질을 제고하고,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 인력 육성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마이스터고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전문계고와의 차별화된 학과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새로운 전문계고 모델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반 전문계고와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확대 운영과 첨단 전문계고 집중 육성, 첨단학과 개편 등 일반 전문계고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형 사립고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 중으로 자율

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우 사학법인의 재정이 열악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주시 평준화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성적 우수자 선발에 따른 학교 서열화 및 사교육비 증가가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법제화 이후에도 평준화 지역의 시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전국 1,859개 고교에 연간 운영비의 10%, 학교 별 1억 5,000만원 규모를 배정 지원할 계획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약이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회의 개최나 세부지침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도 장학 지도와 학교 평가 등을 통하여 단위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브랜드 갖기, 1학교 1전통 가꾸기 등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교육활동 점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단위 학교의 우수 실천사례와 보완사항, 학교

별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등 균형 있는 고교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용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의 점검 방법, 업무증복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상태 개선과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영양교사로 일시에 전환되면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식품위생직이 부족하여 위생·안전 점검 실시에 어려움이 많으나, 극히 일부학교는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양교사의 협조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직이 충원되면 2008년 하반기부터는 지역교육청의 전담인력 추가배치로 인하여 자체 인력으로 학교급식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수용 위원님께서 유치원 교단 선진화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을 위해 노후 PC 교체 지원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구입 후 5년이 경과된 교원용 겸용 노후 PC 교체 예산으로 1대당 110만을 지원하였고, 증설 학급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은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증설되는 학급에 대하여 1학급당 3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교단선진화 사업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단설 및 병설유치원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으나, 동료 위원인 김병우 위원님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 및 도교육청 후속조치 문제 질문과 내용이 같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상일 위원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김병우 위원님께서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및 도교육청의 후속 조치 문제를 질문 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본질은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

을 통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교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학교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과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학교 자율화는 1단계 불합리한 지침정비, 2단계 비효율적인 규제성 조례·규칙 정비, 3단계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원의 과정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1단계 불합리한 지침 정비와 관련하여 교원, 학부모, 교직원,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당 부서의 세밀한 검토와 4차에 걸친 종합검토회의를 거쳐 학교자율화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며 지침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세부계획안 확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08년 4월 30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 등 26개의 지침을 폐지하고, 3개의 지침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학교체육 기본방향은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금지하였고 과목

별 수준별 이동수업은 권장하였으며 방과 후학교 운영은 수요자의 희망에 의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너무 이른 시각이나 늦은 시각의 운영은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방법은 학교 자율결정으로 추진하여 방과후학교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한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적 성장을 위하여 초등교과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하되, 교과 관련성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고, 단체 위탁운영은 금지하나 개별강사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자율화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도교육청의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 분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양 예상 업무 검토 분석과 교육감 권한의 학교장 위임 확대, 그리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교육 관련 규제 사무를 발굴하고자 2008년 4월 1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이양업무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괄 T/F팀, 실무 T/F팀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각급 학교와 교직원단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단계별 조치에 맞추어 학교 자율화 2단계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효율적인 규제성 조례·규칙을 6월 말까지 정비해 나가겠으며, 3단계로 단위학교장,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조례·규칙을 전면 재정비하여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가 확립되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26개의 지침 폐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위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자율화 조치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학교자율화 조치가 단위학교의 운영과 학생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고 충북교육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하고 감안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들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1단계 폐지지침에 대하여 12건의 의견과 2단계 법령정비에 대하여 1건의 의견으로 모두 13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1단계 폐지지침에 대한 의견 12건 중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 계기 교육 수업 내용 지도, 학사, 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독서 논술 교육 활성화 계획, 학생 봉사 활동 운영지침,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등 8건은 그 내용이 현행 관련 규정에 중복되어 폐지하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3건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 수렴결과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학생의 요구와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작용 및 폐해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현행 규정으로 행정지도와 사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자율화 2단계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학교 급별 교원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로 인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했는지, 그리고 요즈음 강력하게 반발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는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폐지 지침 29개를 대상으로 교사,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등 9건에 대하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등 6건은 현행 관련 규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계획 등 3건은 기존계획을 보완하여 대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침 폐지에 따른 이해가 부족하여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교육관련 단체인 전교조충북지부와 충북교총연합회와는 2008년 4월 21일 추진배경 설명 및 협의를 하였으며, 기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의견수렴 방법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지침들 중에서 특별히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들이 추후 현실화 될 경우 지도 감독 관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충돌하는 사항들이 우려스러운데,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율화는 일시적인 혼선으로 인하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교육현장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학부모, 학생,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가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자율화 조치를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학교자율화 조치내용을 내부 검토한 결과 교직원단체의 교섭내용과 충돌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같은 학교 자치를 정비할 제도 보완의 선행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율화의 취지를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문성과 위원회 성격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법령의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율화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무 위원님께서 방과후 학교운영의 실효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특기적성 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을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 학교에서 한정된 프로그램과 수준별 운영이 미흡하여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교육청은 인근 학교간 연계를 통한 거점 중심 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특기적성 신장 프로그램과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며, 유관 기관과 연계한 우수 강사 인력풀 구축과 지역교육청별 순회 강사제를 운영하고 외부강사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및 단위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향후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정수 위원님께서 남일초 방음벽 교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남일초등학교 방음벽은 '96년도 소음 원인 제공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설치한 지 10여 년 된 철재 방음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 미관 개선을 위하여 2007년 11월 교육청 및 학교에서 투시형 방음벽 교체 가능 여부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였으나, 동 방음벽은 소음 저감을 위하여 적합한 재질로 설치되어 있고 투시형 방음벽으로 교체 시 철재 방음벽에 비해 방음효과가 떨어지며, 예산이 재투자되는 관계로 발생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로운 재질로 교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일초등학교 옆 4차선 국도는 문의 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여 소음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 경관을 살

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께서 공·사립학교 교원 정원 및 사립교원의 신규임용 관련과 학생노동교육 관련, 학교급식 쇠고기 공급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사립학교 교원 정원 및 사립교원의 신규임용 시 교원 정원, 기간제교사 채용,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정원에 대하여는 4.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2단계 중,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의 교사 배치 기준을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수준의 시·도별 정원 배정은 초등학교는 학생 18명당, 중학교는 17명당, 고등학교는 16명당 교사 1인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여 교과부에서 시·도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학급수도 고려하여 교원을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위 학교 수준의 교사 배치 기준을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총정원이 배정되면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수목적고

등 단위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하고 있는 현행 교사 배치 방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또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기준에 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교원 정원은 교과부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 별로 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도의 바람직한 교원 정원 책정 기준은 정할 수가 없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임용은 저출산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축, 교육과정 개편 등 학교 형편을 고려하여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질문하신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건에 대하여 재차 확인한 결과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행정실과 교무실의 이원적 업무와 행정실 직원의 자의적 판단과 업무 미숙으로 잘못 보고되었으며, 금년 6,7월 중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지도 시 해당 학교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여 교원인사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아르바이트 현황, 노동인

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일 현재,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은 36개교에서 82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불법 퇴폐업소, 사행성 업소 등 불건전한 업소에는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정 형편상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학부모의 동의하에 건전 업소에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은 현장실습은 물론 직업 세계로 진입할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사전 교육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노동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수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특히 금년에는 노동인권교육 교과연구회를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께서 방과후 교육 활동과 유아교육, 찾아가는 한글교실, 학

생 화장실 청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지원, 보육교실 운영, 소규모 학교의 학습 대상자 및 강사 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과 평생학습지원 문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족과 우수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유관 단체와의 협조체계를 통한 시설개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교가 평생학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교실 운영 면에 대해서는 현재 59%에 해당하는 150개교가 전용교실 확보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시간운영과 우수 보조교사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지속적인 보육지원으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농산촌 소규모 학교에서 학습 대상자 확보 및 과목 선정과 강사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수요자의 희망을 고려한 인근 학교간 연계를 통한 거점학교 운영으로 프로그램

및 강사를 공유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통한 소규모 학교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외부강사 인력풀 구축 및 순회 강사제를 운영하며 우수학원 강사를 농산촌 소규모 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건이 형성된 학교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은 저비용 고효율을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촌 소규모 학교는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점학교, 중심학교 등의 운영을 통하여 소규모 학교도 방과후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건이 형성된 학교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듀케어 희망유치원 수용, 10년 이상 된 종합 놀이기구 교체 요구, 진천 상산초, 삼수초 단설유치원 추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에듀케어반 운영 수용 현황에 대하여는 1일 13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

원 에듀케어반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25개 원으로 그 중 18개원은 에듀케어반을 운영하고 있고 미 지원 7개원은 현재 종일반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8년 3월 1차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한 종일반 수요조사 시 에듀케어반 운영 희망 수요가 파악되지 않아 에듀케어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에듀케어, 종일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오래된 유치원 종합 놀이기구 현황은 총 9개원으로 1개원은 2007년 개보수 하였고, 2개원은 2008년 교체 예정이며 1개원은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교체가 필요한 유치원은 5개원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10년 이상 오래된 유치원 종합 놀이기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상산초 및 삼수초 병설유치원 통합 후 단설유치원 추진은 단설유치원 전환은 5학급 이상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추진하여 왔으며, 단설유치원 전환 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학교로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조성에 유리하나, 사립유치원의 반대, 재정 부담 가중 등으로 현재는 가능한 단설유치원 설립을 억제하고 있습니

다.

진천 상산초와 삼수초 병설유치원은 각각 4학급씩으로 유치원 건물이 별도인 단독 원사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병설유치원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며, 두 유치원이 통합하여 별도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유치원 설립에 따른 재정소요, 기존 유치원 시설의 유희화 등이 예상되어 추진이 어려움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한글사랑관의 정규교사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한글사랑관 프로그램은 한글사랑관 홍보 영상 자료 및 EBS 한글 교육용 CD 시청 35분과 보충설명 10분 등 45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사랑관의 홍보 업무는 교육연구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능직 1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글사랑관을 충북교육박물관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업무의 성격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화장실 청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청소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2007년도 정부시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국고지원 대비 지방비 5대 5로 시·군별 자활 후견기관과 연계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학교 의견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 등 학교 청소는 교육의 일환으로 협동심과 봉사정신 등 사회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부터는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용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 환경오염도 측정과 연구학교 지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도 측정 점검 실적, 장비사용 미흡, 외부업체 검사 의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내 공기질 측정업무는 2005년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2006년도부터 학교장이 연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측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2006년도 본청 및 7개 지역교육청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4개 지역교육청의 필요예산을 지원하여 장비

를 구입·활용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교육청의 점검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473개교 중 79.3%인 375개 학교를 점검하였으며, 20.7%인 98개교는 외부기관에서 점검한 학교로 이 중 신설 및 증·개축 학교 12개교는 법규상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 지역교육청에 측정 장비가 모두 보급되었고, 담당인력이 보강되는 관계로 각급 학교 공기질 측정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과 장비활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학교 지정 확정 발표 시기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실험학교의 지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과제가 결정된 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학교를 지정하게 되고 그 후 도교육청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지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연구학교 지정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길 경우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에는 유리하나, 가산점 확보를 위한 교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교육계가 자칫하면 교육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수 따기 경쟁에 휘말려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부터는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유리하도록 지정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 위원님께서 수업스타의 처우와 기초·기본 학력, 새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영어몰입교육, 지역별 영어캠프 운영, 초·중등교사 과학과 실험연수, 배움터지킴이, 고등학교 학생의 국외여행, 학교급식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업스타의 처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유·초·중등 교감 연수대상자 중 수업스타의 전체 대비 비율은 연수대상자 77명 중 수업스타인 1등급 수상교사는 3명으로 전체 대비 비율 4%이나 수업스타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고, 수업연구대회 참여자의 대부분이 저 경력 교사여서 연수대상자의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수업스타가 받고 있는 혜택은 교육감 상장 및 인증패 수여, 파견교사 선발 및 교육과정 연수, 영재교육담당 교사 연수 등 각종 연수 대상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외체험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표창 시 우선

추천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겠으며 전문직이나 수석교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좋은 수업을 전개하는 선생님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교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미해독자 구제 방안, 기초학습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말 현재 한글 미해독자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55명, 총 307명입니다.

한글 미해독자 학년별 비율은 초등학교 2학년이 0.54%, 3학년 0.31%, 4학년 0.24%, 5학년 0.20%, 6학년 0.16%이며 중학교는 1학년 0.15%, 2학년 0.08%, 3학년 0.04%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비율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한글 미해독자 구제 방안으로 부진아 개인별 카드제를 활용하여 담임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받아쓰기 급수제 실시, 방과후와 방학 중 특별 보충 프로그램 운영 등 1대1 개별 맞춤 지도로 한글 미해독자 제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한글 미해독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기초학습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책임제를 통한 기초학습부진아 제로화 및 1학년 담임 사기 진작을 위해 연구해

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바로선 학생 생활 교육은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 학생만들기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바른 생활 5대 규범 실천 운동을 연중 벌이고 있으며 기본생활 습관 형성, 내면화, 생활화를 위해 교과지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생활 규범 실천 및 추진 사항을 장학활동과 수시 장학을 통해 점검하고 우수학교는 표창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시성이 되지 않고 일상적인 실천중심의 바른 생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몰입교육의 학습효과 기대, 영어수업 가능 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교육청 소속 초·중·고 영어과목 담당 교사 중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의 비율은 중학교는 453명의 영어교사 중 356명으로 그 비율은 78.6%이며 고등학교는 409명의 영어교사 중 258명으로 그 비율은 63.1%이고 초등학교는 영어 전담교사 182명 중 146명으로 그 비율은 80.2%로서 초·중·고에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의 평균 비율은 72.8%로 영어를 통한 영어수업에 대한 준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과 관련하여 무자격 영어교사 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에 따르면 영어전용교사, 영어전용 보조교사를 채용한다고 하였으며 영어전용교사는 선발 이후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여 유자격 교사로 발령을 받게 되며 영어전용 보조교사는 대학생, 영어 잘하는 주부 및 지역주민, 해외교포 등으로 구성되며 무자격이나 영어전용 교사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수위의 발표에 따르면 영어전용 보조교사에게 교통비, 강사비 등의 지원, 학점 인정, 자원봉사마일리지 등 제도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고려 중에 있으나, 구체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영어전용교사는 2009년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며 2010년부터 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영어전용 보조교사는 영어전용교사의 활동을 도울 도우미 교사로 이해하실 수 있으며 영어전용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 우리 교육청도 그에 따라 영어전용 보조교사에 대한 자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살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단위별 20일 이상 영어 캠프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체험프로그램

램 참가 기회를 주기 위해 주로 단기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이상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학생외국어교육원과 단양교육청으로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장기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부, 북부 영어체험센터 및 지역별 초등영어 거점센터 설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각급 학교의 영어전용실 확대 설치 등이 이루어지면 학교별, 지역별 중장기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학과 실험연수 교육청별 평균 재교육 시간, 연수반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 실험연수 평균 재교육 기간은 실험연수 대상자를 신규교사, 실험연수 미이수 교사를 우선 지명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산술적 평균으로 3년에서부터 15년이 소요됩니다.

과학과 실험연수 대상자 인원 조정 계획은 시 지역은 연수 대상자 인원을 증원하고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청은 감축하는 등 연수대상자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연수 기회 확대 및 지역교육청간 연수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여 교사들에게 실험수업 지도역량 강화를 위

한 탐구·실험 중심의 연수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움터지킴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치된 학교수와 인원은 30개교에 각 1명씩 배치되었고 내년도에는 충북도청 및 청주시청과 협의를 거쳐 68개교에 각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의 자격은 퇴직 교원, 퇴직 경찰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피해학생 학부모 등으로 건강하고 봉사정신 및 직무 능력을 겸비한 자이며, 학생지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과 보수 관계는 학교장 감독하에 교내에 상주하면서 취약시간대 교내·외의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지도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학생 생활지도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이며 그에 따른 점심식사비, 교통비 명목의 활동비를 1일 3만 5,000원, 월 20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교원 출신은 4명으로 전체 30명 중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1월 중에 공모를 통해 운영학교를 선정·통보하면 2월 중에 해당학교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학생 사랑에 열정이 넘치는 우수한 퇴직 교원 출신이 보다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국외여행 학교수, 여행 지침 비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은 2007년도 6개교에서 2008년도는 3개교로 줄었으며 수학여행 중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국내외 수학여행 중 생활지도 지침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수학여행 중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교대 급식 학교수, 다기능 오븐기, 급식비 지원 조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좌석회전을 3교대 이상 학교는 직영 급식 학교 449교 중 10.7%인 48교가 3.5교대 이상의 좌석 회전율로 배식시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해당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여유 공간이 생기면 예산을 투자하여 식당 좌석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4개교에 예산을 투자하여

부족한 식당 좌석을 확충하였으며, 추후 학생 증감 현황 및 학교의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식당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현대화 기구인 다기능 오븐기는 급식기구 중 가장 단가가 높으며 국산은 조달청 가격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외제의 경우는 약간의 기능이 추가되어 편리한 점은 있지만 고가의 급식기구로 1년간 감가상각비가 500만원에 이르러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국산 물품 소비촉진의 목적도 있고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 국산 다기능 오븐기가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보급된 오븐기를 다양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인문계고 석식용 정부미 지원에 대하여는 일반 중·고등학교는 중식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미 공급기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인 충청도청 농산지원과에 석식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충청북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과 지침 변경에 따른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 현황은 2008년 4월 현재 충북 도내 13개

[제216회-제2차 본회의]

지방자치단체 중 10개의 시·군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입법예고 중이며 단양군은 아직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거하여 14억원을 지원을 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9개의 자치단체에서 23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학교급식 쇠고기 공급에 대한 안전적 대책의 답변이 누락되었기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내 급식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쇠고기는 100%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난 4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친환경인증 진위확인, 원산지 식별, 유전자변형, 식중독균 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교육청의 자체 조리교의 20% 이상, 20학급 이상 초·중·고등학교에서 연1회 이상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360건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2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쇠고기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므로 국내산 쇠고기를 안전하게 공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정수 위원님께서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기숙사 신축의 필요성 여부와 관리운영 실태, 소규모 사립 및 공립 중학교

의 처리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정과제의 구체적 사업내역, 소요재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진 사업으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영어 공교육 관련 사업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기숙형 공립학교와 마이스터고 지정, 자율형 사립고 도입,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바른 인성 함양, 기초학력 강화 등입니다.

소요 재원은 기숙형 공립고,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 인프라 구축, 마이스터고 등 과제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322억원의 국정과제 추진 보통교부금과 2007.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숙사 신축의 필요성과 아파트 및 공공숙소 매입 대체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신축은 학생의 학력 제고 및 원거리 거주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를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숙사 수용 정원에 비하여 운영율이 낮은 일부 학교도 있으므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숙사 신축 규모를 학생 미 입사로 시설 잉여가 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 향후 학생수 변동 등을 고려, 기숙사 수용 인원을 결정하여 신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사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증축 또는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잉여 시설이 발생될 경우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른 목적의 교육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주변의 아파트나 공공숙소를 매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문제는 학교주변에 다수의 학생이 기숙할 수 있는 물량의 동일 장소나 동일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는 어려움과 학생생활 지도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세 사학의 미래에 대한 대책, 전출학생 출신교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중 학생수 50명 이하 학교는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20개 학교가 있으며, 이 중에서 사립 학교는 영동의 정수중학교와 괴산의 청안중학교 2개교로써 정수중학교는 35명, 청안중학교는 13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영세 사학 해산 시 법인 재산의 설립자 환원이나 교육청 매입이 가능하다는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산을 유도하였으나 법인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영세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는 학교설립 이후 수십년간 보통교육에 기여한 점, 학교법인의 특성상 학교 통·폐합을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자발적인 해산을 권유하는 것 외에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공립학교는 학생수 50명 이하 학교로 학부모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극히 소수라도 학생이 있는 한 학교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내 영세 사립 중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해산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공립 중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을 위해 통폐합하도록 학부모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통학비용 지원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안중학교의 3월 5일자 전학을 간 학생 2명은 청안초등학교와 음성 대소초등학교 출신이며, 입학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께서 외부기관 공문서 유통과 직속기관의 업무조정, 사택 및 문단은 학교 유지관리, 통학버스 운영 문제, 사립학교 지원, 일반직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외부기관의 불요불급한 공문서 이첩이 많으므로 불요불급한 공문 이외에는 이첩을 줄여 교원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문서는 총 2만 6,212건으로 이 중 상급기관, 산하기관, 대내문서를 제외한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문서는 11.3%인 2,975건이며, 이는 2007년도 동 기관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2,859건보다 11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3월분까지 외부기관의 이첩문서를 포함하여 생산된 총 문서는 5,801건으로 이 중 33.9%인 1,964건이 산하기관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접수되는 문서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문서도 꼭 필요한 경우만 산하 기관에 시행하고, 일반적 협조나 홍보 관련 문서는 회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문서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유사 업무 통폐합, 행사를 위한 업무 조정의 필요성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 등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본청 및 산하 각급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7월 1일자로 신설예정인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학생 체험 활동, 학생 문화 축제 및 학생 문예활동과 고령화 사회의 대두로 날로 증가하는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중앙도서관과 차별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환경 및 수요 변화와 2007년도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직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관별 기능에 따른 업무 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하지 않는 사택의 관리비

및 보수비 예산 절감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 활용하는 방안과 문단은 학교 중 임대되지 않은 건물은 과감히 철거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택의 신축, 유지 관리는 원거리 통근 해소, 학생 생활지도, 입주희망 교직원의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 환경의 변화, 교통의 발달 및 인사이동 등 수요 변동으로 일부 지역은 단독 사택의 활용율이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택 신축시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 권역별로 교직원의 입주희망을 조사하여 사용에 편리한 원룸형태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를 구입하여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미 입주 시 공동 관리비 부담, 재산세 납부 등 관리의 어려움도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학교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문단은 학교의 유지에 관하여는 미활용 중인 문단은 학교 중에서 건물 유지보수비를 투자하여 임대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임대활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여 장기간 임대도 되지 않고 유지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

[제216회-제2차 본회의]

된다면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통학버스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버스 위탁 운영으로 인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부터 통학버스 임대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통학버스는 2007년도에 160대의 운행 버스 중 직영은 147대이고 8.1%인 13대를 임차하였으며, 2008년도는 162대 중 직영은 144대이고 11.1%인 18대를 임차 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 수정초등학교의 법주분교장의 경우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명의 통학을 위해서 버스가 1대 운영되었던 학교는 1999년도 단양군 적성분교장 폐교로 상진초등학교에 지원되었던 차량으로 교체 대상인 금년도에 차량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 통학버스 이용학생이 적은 학교 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점차 축소시키고 택시이용이나 교통비 지급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신규 통합학교, 통학버스 교체대상인 학교, 운전원 감축 교 등에 대하여는 이용인원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임차버스로 전환 또는

택시 이용 등으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자구 노력 없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와 지자체 지원 유도, 대응투자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영세법인으로 법정 전입금도 전입을 못하는 실정이며, 대학법인도 법정 부담금 부담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학교법인에서 적기 시설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공립과 사립학교 재학생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의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재정결함 보조금, 시설비, 목적사업비를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다목적교실 신축 시 특별교부금 교부 기준에 맞추어 30% 이상의 재원을 학교 법인 또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직 5급 승진 시 동일직급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승진이 적체된 사서직공무원을 위하여 도서관장 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정책대학원 교육과건을 검토하자는 의견, 학생교육문화원에 시설 5급 임용, 급식담당에 보건사무관을 보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5급 승진 시 일반승진 시험 5할과 인사위원회 심사 5할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승진시험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근무성과 경력 등이 고려된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일정 배수 내 인원만을 응시대상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지만 동일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누구나 추천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동일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를 시험에 응시시킬 경우 경력이 적은 공무원들이 시험공부에만 전념함으로써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시험 준비에 따른 폐단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일반직공무원 중 사서직 공무원들의 현직 임용 경력이 오래된 것은 사실이나 사서직 5급의 경우 최초임용 후 10년 내지 14년 내에 교육행정 직보다 훨씬 빠르게 30대의 나이에 5급 승진을 하여 상위직 승진에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정 직급에서 적체가 된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구조조정 추이와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시 직렬간 형평

등을 고려하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 시설직 5급 공무원을 학생회관 관리과장에 보임하고 교원대정책대학원 파견으로 상위직 승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생교육문화원은 3급 기관장에 하부조직 중 학생문화 관리부장을 행정 또는 기술 서기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5급 보임은 직제구성, 분장사무 및 직렬간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제 중 평생교육체육과의 학교보건담당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급식담당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직급을 복수로 책정 운영하고 있어 지방보건사무관은 학교보건담당에만 보직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보건사무관의 복수직급 확대 책정은 업무추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웅 위원님께서 본청 직원들이 초과근무로 불야성인데 매일 근무하는 초과근무라면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도 정말 필요에 의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과에 따른 격려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한 정부의 의욕적인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단위학교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재택근무,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 회의문화 개선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다양한 업무 경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교육 시책의 도입 개발 추진으로 업무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과중한 업무 해소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및 안보 현장 견학, 외국연수, 우수공무원 포상 등 격려와 보상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근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본청 조직개편 시 업무 재조정과 인력의 적정한 재배치를 통하여 부서별 업무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업무가 편중되어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급자를 의식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무 위원님께서 지방교육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직접 행정업

무를 처리할 경우 교사업무를 가중시킨다는데 대한 대책과 농산촌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감소하고 멀리 있는 학교에 등하교하여야 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교육행정시스템에 의한 교사들의 업무 가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학교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은 학교회계 분야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교육 내용으로 볼 때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교사가 사업담당자일 경우 본인이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와 품의요구를 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도 일반문서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학교회계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학교회계동아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사용자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사용자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시스템 시행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학교 1면 1개교 유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은 대도시로 이주, 출산을 저하 등으로 해마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추진은 학생수 기준으로 분교 5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75% 이상 찬성 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1면 1교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통학여건이 어려운 면 이하 농촌지역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2대의 임차버스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청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청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충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의석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정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광정수 위원 의석에서 “우리 김병우 위원님 먼저 하면 안 될까요?”)

● 의장 성영용

그렇게 하시겠어요?

(광정수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성영용

김병우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병우 위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다.”)

● 의장 성영웅

김병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엣그제 질문을 한 뒤에 어제 답변서를 건네 받을 때 우리 의사국 식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본청에서 답변서를 만드느라 실무자들이 거의 날밤을 샀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편으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어제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도 밤늦게까지 작성해 주신 답변서를 나름대로 꼼꼼히 읽고 또 감동도 받고, 성실한 답변에 고마움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 그래도 좀더 보완됐으면 하고 좀 미진한 구석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밤늦게까지 과제들을 연구하고 고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무슨 짐을 주거나 부담을 주려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나누는 그런 기회다라는 생각에 참 미안한 마음도 덜어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질문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저의 4.15 조치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왜 묵살했느냐고 했던 질문 중에서 답변서를 보니까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등을 비롯한 8건은 그 내용이 현행 관련 규정에 중복이 되어서 폐지하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이런 답변을 주셨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별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별도 관련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학교단위 자율로 넘겨도 사실상 학교는 자율로 할 수 없다는 뜻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침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막연한 상위 규정들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 운영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문제의 책임은 결국은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단위에 있게 되는데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게 되면 지도 감독 관청에서는 책임은 없고 문책하기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지침을 존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냈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학교 단위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3건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자율로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작용이나 폐해라는 촌지문제라는 것이 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등 현행 규정으로 행정지도와 사후조치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결정을 하게 되면 선례로 봐서 대부분 학교가 배달과 수금까지 대행해 주고 수고료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문보급소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행동강령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채택과 관련해서도 좀 과도한 예상일 수 있지만 대학의 예를 보면 공동구매도 가능하고 교수나 교사가 교재를 알선하고 또 판매대행을 직접 책까지 배포하고 또 수금하고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단위 맡겼을 때, 그리고 설사 알선 수수료는 없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행동이 행동강령에 저촉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모의고사 관련한 부분도 관리를 대행할 경우에 문제지를 배포하고 감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쓰고 이렇게 해 주는 경우, 일반적일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과연 행동강령에 저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단위 학교에서는 좀 헛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단체 교섭내용과의 충돌 관련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충돌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위배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협약위반을 제소할 태세까지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 사항을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피소대상은 교육감님이 되시지만 만약

에 협약 위배 판결이 난다면 해당 실무자의 착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단체협약 위반이 만약 사법적인 판결로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저의 질문 2, 대통령 공약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 재원 관련한 질문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그 재원을 국민부담을 없이 하면서 지방교육재정 10% 감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었던 그 사안에 있어서 그 지방교육재정 10%를 관 조직을 슬림화하고 기관 예산 거품을 제거하고, 공무원의 허리띠 조이기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0% 절감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올렸느냐 여쭙었더니 답변에 총 예산의 10%를, 그래서 152억을 절감하겠다고 이렇게 밝혀주시면서 학교교육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절감안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취지는 당연히 좋지만 너무 내용이 모호한 듯 해서 이번에 행정질문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재원으로 공약실행이 가능하겠는

가, 충당이 가능하겠는가 하고 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답변에서 역시 애초 계획대로 절감액은 152억이고, 거기에다가 국정과제 추진 교부금으로 322억이 또 내려오고, 거기에다가 세계잉여금 선정산을 통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그것이 재원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현실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상세 내역을 보니까 그 서면질문 답변에서는 학교교육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하셨었는데 보니까 학교전출금은 분명히 제외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본청 집행액 중에서도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해소, 보건 급식 체육활동,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이와 같은 교육복지 예산을 감축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고루 집행돼야 될 공교육 예산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대통령 공약에 전용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저의 질문 3, 고입연합고사 관련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도 단위 9곳 중에 7곳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충북과 경남이 연구를 추진중이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 개선방향이 연합고사 도입 쪽으로 검증되면 보완 방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답변 주셨습니다.

답변 참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좀 두루뭉술인 것 같아서 다시 구체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검증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산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부산처럼 원점으로 돌릴 것인가. 다시 말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강행할 것인가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께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연합고사 병행은 분명히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 관련성이 분명히 검증돼야 4,000만원 들이는 연구용역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력 관련성을 검증하려면 연합고사 시행이 학력신장에 유의한지가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분명히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 싶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도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실제 근거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시·도들이 우리보다 학력이 높은지. 제가 확인하기로 경기, 울산, 전북이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전북은 아마 도세가 우리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북이 우리 도보다 수능성적이 계속 높아왔는지 그것을 좀 확인과제로 세워주시고요, 세 번째로 시행하지 않다가 금년에 와서 부활한 시·도들이 시행 후에 학력이 신장되었는가.

제주, 전남, 충남이 2003~2004년 사이에 부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도는 2006년부터 연합고사를 병행해서 본 학생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수능결과가 나왔을 테니까 과연 부활해서 시행한 결과로 학력이 높아졌는지는 그 단순비교만 해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연구과제를 학력신장 관련성의 검증을 위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할 용의가 있는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저의 질문 6 중에서 학교급식 쇠고기 관련, 현재까지는 100% 국내산으로 사용해 왔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유전자 검사 계속해서 확인을 해왔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싶고요, 다만,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계속 국산 쇠고기 사용을 학교급식의 식재료 육류로 의무화할 것인가, 분명히 다짐을 하실 수 있는지 가능하시면 확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성영용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정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곽정수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성영용

곽정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김병우 위원님, 밤 새워서 준비하신 우리 본청 관계관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려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보고자 합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청주시 소재 각급 학교 교장의 근무연한 폐지에 따른 개선책에 따른 답변 중에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역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에도 썼습니다만은 BJR, 배째라 그런 얘기죠, 배째라 나는 여기 와서 아직도 6년이 안됐다 하는 교장선생님, 관리자들에게 경각심을 깨우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임기제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포함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를 없앴으로 해서 좀 상징적인 의미도 또 선언적인 의미도 갖는, 그래서 교육감님의 인사권이 좀더 강력하게 집행이 돼서 좀더 나은 충북교육의 중심이 청주시 교육이므로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의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은 의견을 수렴해서 많으면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강하게 실천하겠다는 답변을 사실은 더 기대했었습니다.

다음에 남일초등학교 방음벽에 관한 질문을 제가 작년도에도 드렸었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그냥 그대로 있어서 좀 뜻이 잘못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방음벽을 전체를 다 투시형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담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시야에 보이는 부분만 두세 칸 정도를 투시형으로 하면 그 자랑스러운 잔디 운동장에, 또 그 아름다운 우레탄 트랙에, 또 다목적실 뭐 이런 등등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을 따지고 이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국토관리청에 가서 실제로, 서류만 왔다갔다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 실정을 말로 호소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숙사 문제입니다.

제가 기숙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2,3십년 후에 그 용도가 폐기됐을 경우에 학교의 흉물로 남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은 향후 그런 여건이 생긴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하나 된 것은 서원고등학교나 흥덕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그 학교는 운동장을 빼놓고는 지을만한 그런 여건이 못 갖춰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교가 굳이 기숙사를 요구할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소가 불비해서 못 지어준다고 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요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학교 밖에 아파트나 또 원룸 등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매각해서 다시 교육재산으로 환원해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대안을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그런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숙사를 지을 수 없는 학교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우리말로 하면 꺾끄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말하는 사람은 쉽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사가 달려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감히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육영의 뜻을 품고 사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그 많은 졸업생을 냈던 그런 학교가 현재 학생이 13명밖에 되지 않고 교직원

이 14명이 되는 이런 기현상 속의 학교로 현재 남아 있는데 문제는 도서벽지에 그 학교가 소재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화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10분 내에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 있더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보면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영세 사학재단 해산 시 법인재산의 설립자 환원이나 교육청 매입이 가능하다는 이런 특혜 규정이 적용되는 걸 적극적으로 그 재단 측에 설명을 하고 해산을 유도했으나 법인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그 재단 측에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답변 중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이라도 그냥 그렇게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학생을 위한 교육이나, 재단을 위한 교육이나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우리 교육에서 너무 온정주의에 흐르기 때문에 재단이 나름대로 결심을 하는데 좀 판단이 흐려지지는 않았었나 하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주 가는 길가에 있는 한일고등학교처럼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변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재단 측에서 있어야 되도록 국가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해결책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명용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부웅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성명용

김부웅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제가 드렸던 그 본 질문은 학교현장, 또는 해당 공무원들과 만나서 개선점을 협의해보는 사항 중에서 작지만 지나쳐버릴 수 없는 문제점들을 질문드렸는데, 앞서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관계관님께 감사드리며, 좀더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장공모제 문제입니다.

학교장공모제 운영은 그 동안 수정초등학교나 청원고등학교의 예처럼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초빙교장에 보임된 교장들의 자체 분석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들 스스로도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과부에서 평가방안을 수립 중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전이라도 운영제안서를 검토 분석해서 계획의 추진 및 이행 정도를 평가해서 일부 잘못된 인선, 또는 게으른 관리자가 발견되면 임기 4년을 채울 것이 아니라 도중에라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요.

다음 방과후 교육활동과 평생학습 문제는 농촌소규모 학교의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활동의 여건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현장에서는요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은 계속 배시되는데 희망자는 없고 역지로 희망자를 채워놓으면 강사를 구할 수 없고 담당자는 그야말로 울상을 짓기 십상이라는 일선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강사비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능한 강사는 농산촌의 교

육활동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역지로 강사를 확보해봤자 생활비도 안되는 인건비를 받고 채용되는 강사라면 학원강사를 능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생각으로 아이들이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입니다.

관계관님,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농산촌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평생학습 교실에 참여하는 강사의 수고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다음,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설립을 하지 않는 이유와 단설유치원 설립을 억제하고 있는 이유를 사립유치원의 반대, 재정부담, 원사의 유휴시설화를 들고 있으나 중평과 진천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각각 1개원씩 있을 뿐이고, 음성 4개, 옥천 4개원, 청원권에 3개원의 사립유치원이 있어도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알고 있으나 이는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반대한다고 해서 설립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육화 되어 가는 영유아 교육의 추세에도 어긋납니다.

재정부담 문제는 두 개의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특히 진천 상산, 삼수의

병설유치원을 병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설유치원의 시설 유희화 걱정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현재 삼수병설유치원은 독립원사 주변의 사정이 참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상산병설유치원은 학교 맨 뒤편의 그늘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소마저 협소해서 외부 놀이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함은 물론, 현재 있는 시설조차도 협소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산병설유치원 쪽은 초등학교 1,2학년의 특별실로 활용하도록 하고 삼수병설유치원 쪽에 약간의 시설을 더 한다면 8학급 내지 10개 학급의 규모가 큰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택관리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모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9,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사택수리비를 계상했는데 5km로 이내의 인근 아파트 시가를 조사해 봤더니 24평형이 5,000만원 정도, 30평형이 8,500만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빈집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로 오

히려 교내에 있는 빈 사택보다는 아파트에 있는 사택이 비었을 때 인근의 다른 학교 교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관리상의 문제와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다음, 인사문제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5급 사무관 이상의 보직을 행정, 기술직에 관계없이 보임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또 다른 시·도의 행정직과 소수 직렬들을 관계 없이 보직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우리 도의 공무원 중 같은 자리에 5년 이상 보직된 경우의 자료도 제출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정기간 성실하게 봉직한 공무원에게 시험 문호를 개방해 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시험에 전념하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차피 3진 아웃제라는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조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게 사기양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교원 예우에 관한 문제인데 본인이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아직도 일선의 행사에 참여해 보면 자모회장, 이장, 조합장 등을 소개하면서 학교장 소개에 인색한 것은 교장들이 너무 많이 참석해

서 시간 관계상 어찌구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소개도 못할 자리라면 아예 초청하지 말든지 소개도 못 받는 자리라면 학교업무 뒤로 팽개치고 남의 행사에 참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어떤 행사에서는요 해당 학교장이 소개를 안 하니깐 우리 교육감님이 올라가셔서 일일이 소개하는 일도 보았는데 이것은 교육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교육국장님, 제발 교장, 교감, 기타 연찬이나 회의 시에 스스로 예우를 받도록 행사의 의식준비를 하도록 주지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성영웅

김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용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수용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성영웅

서수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용 위원

서수용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성실한 답변에 만족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당부를 겸해서 두 가지만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학교 교사환경 오염도 측정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이 질문 주제를 정하기까지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불만의 소리를 담아서 드린 건데, 답변을 듣고보니까 의외로 교육청에서 해준 경우가 많으네요. 이것을 보고서 제가 놀란 겁니다. 청주의 경우는 64.8%를 외부용역에 의뢰했고요, 청원군의 경우는 53.8%, 보은은 45.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교육청은 거의가 다 자체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군교육청에서 이렇게 50% 이상을 외부용역에 의뢰한 것은 예산낭비나 행정지원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좀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말미에 앞으로는 기왕에 구비된 장비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아예 공문시행에서 전년도처럼 언제까지 검사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해라 할 것이 아니라, 시·군교육청의 검사를 필하고 학교의 업무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

용 중에서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기에 따라서 조금 치사스러운 거라 본 위원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만둘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약해 보면 초과근무를 많이 한 사람을 근무를 열심히 잘한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보상책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제가 물었던 질문요지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여기 답변에 보면 상급자가 초과근무를 부담줄만큼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안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없는 건지 확인한 것을 들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과 책임자 분은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안 하는 건 아닌지, 혹시 차상급자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독을 빙자해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는 상급자가 불시불시 저녁에 들렀다 간다라고 하면 여간 배심가지고 일찍 집에 가기 힘듭니다. 그것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아니고 정말로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어제처럼 답변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저희들이 미안하죠. 또 그 지도급에 계신 우리 본청 직원분들도 그런 상황이 생겨서, 또는 그런 업무가 생겨서, 또 다른 사람보다 업무가 폭주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 여기에 예시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느 직원은 남아 일하는데 가도 귀찮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다든지, 제가 밝혀드린 과에 따라서 세 배 내지 네 배의 근무성과가 차이가 난다면 그게 정말 업무량 때문일까요. 또 개인에 따라서도 네 배 안팎의 근무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 보셨으면 이렇게 있어요. 행안부, 공휴일 근무 억제 하고 나오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했죠? “휴” 하고 만세 부르는 장면 보셨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도 휴일 근무하지 마라, 교육감님이 명을 내리신다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하니까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은 상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치사하고 아마 지금 제가 발언한 내용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존

심 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불평등도 없애면서 근무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명용

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상일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일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성명용

이상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대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 결과 성적 미흡한 학교에 대한 대책과 학력신장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와 교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 6일 실시한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 결과를 도교육청에서는 면밀히 분석하셔서 학교단위의 수업혁신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준별 분반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부진한 과목을 집중 지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도록 지도하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분발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보다는 2009년에는 확실히 우리 충북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도록 더욱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는 교육관련 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25일 당시 한나라당이주호 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이 2008년 5월 26일 발효되고 관련법 시행령이 5월 26일 제정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법 5조에 의거 공개내용과 범위, 시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개정된 특례법에 따라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 주실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아쉬운 마음을 조금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은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정보를 들을 뿐 우리 충북도에서는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가는지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3일 교육위원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틀간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님께 교육위원회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종합된 의견을 모아서 추진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안이 일선 시·군교육청이나 교육현장에 지시되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사전설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자율화 추진 내용도 몰라서 행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교육시책은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알려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와 집행청이 좀더 교감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이 부탁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무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무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성명용

정무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엇그제 교육행정질문에서 너무 많이 질문한 것 같아 미안한 감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고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 답변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퇴직하신 몇 분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했고, 또 그 분들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배움터지킴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학교는 30개교에 1명씩 3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된 현황을 보면 퇴직교원 4명으로 13.3%, 퇴직 경찰관 4명으로 80%, 상담전문가가 2명으로 6.7%입니다.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학교장인데 퇴직 교원이 퇴직 경찰관의 6분의 1 수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 퇴직 교원이 학교와 학생을 위해 남은 열정을 받치고 싶어하는데 퇴직 경찰관의 반의반도 임용되지 않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또는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퇴직 교원들이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억측입니다만 학교장이 퇴직 교원 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원인이 후자보다는 전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68개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해마다 1월중에 치킴이 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월중에 해당 학교에서는 공모를 통해 지킴이 신청을 받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임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퇴직하신 교원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퇴직 교원이 임용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배운 터지킴이가 금년도에 13.3%인데 내년도에는 50% 이상 임용하여 주실 수 있는지 기대 대해 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청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청의 관계관계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증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곽정수 교육위원님께서 청원 남일초의 방음벽 교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청주·보은, 청주·문의, 문의·상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량이 10년 전과 비해 대폭 증가하고 학교 앞 4차선 국도가 확장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 기관과 직접 방문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교 경관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우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등 8건 지침 폐지로 인한 모호한 규정으로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 지침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9개의 폐지 지침은 학교자율화의 불합리한 지침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령이나 규정과 중복되지만 사안 발생 시 시기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시행된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 중에서 이 지침이 없어도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법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은 이번에 포함해서 폐지가 됐

습니다.

학교자율화는 다변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의 하나로 개별적이고 구체적 지침이나 획일적인 지시보다는 학교구성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 한도 내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학부모, 학생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키워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시 지도 감독보다는 단위 학교가 다변화 사회에 자율적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교육목적과 학생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고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행정을 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에 있어서 학교가 배달과 수금을 대행해 주고 수교료를 받는 것이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시 어린이신문 구독의 경우 학교공동체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결정하되, 비교육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여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특정매체 구독

관련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지조항을 준수
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행동강령을 위반
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다음은 부교재 알선, 또는 판매 대행
및 사설 모의고사를 관리 대행하면 행동
강령에 저촉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사가 부교재를 알선하거나 판매를 대
행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11조 알
선 청탁 등의 금지 또는 제14조 금품 등
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학교가 대가 없이 문제지 인수,
답안지 송부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공무
원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다음은 해당 단체의 협약 위반 제소 결
과 단협 위반으로 판결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4월 30일 학교자율
화 세부추진계획 발표 시 기존 교직원체
와의 단체협약 사항과의 갈등 관계를 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충돌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만 교직원체에서
협약 위반사항 제소로 단협 위반의 판결
이 나올 경우에는 사법판결에 따를 것이
며, 해당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갈등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에
서 연합고사 도입에 관한 타당성이 검증
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
한 보충 답변입니다.

먼저 부산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부산
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연구했던 사항들의
장단점이 나온만큼 이를 근거로 심도 있
게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도 단위 9곳
이상에서 7곳이 이미 연합고사를 시행하
기 때문에 우리 도가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
해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학교 내의
경쟁이 아니라 전국 대상의 경쟁에 대비
할 수 있는 고입전형제도의 보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합고사 타당성 연
구를 의뢰한만큼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에 관한 모든 것
을 판단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력신장 관련성의 검증을 위해
연구를 용역기관에 의뢰할 용의가 없는가
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용역기관에서 타
시·도의 사례연구를 할 때 연합고사가
시행된 후의 효과성 부분도 연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학력신장과의 관련성 부분도 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용역기관에 학력신장과 관련된 관련성 검증을 위한 연구를 별도로 의뢰하지 않고 이미 용역 체결된 업체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쇠고기 관련 쇠고기 사용 의무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도 계속 국산 쇠고기 사용을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서 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을 뿐 아니라 국산 쇠고기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이는 외국 상품과 자국 상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10조 1항과 관련 학교급식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이라도 일부 학교에 대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범 운영한 후 안전성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의 교장공모제에

대한 보충 답변입니다.

교장공모제 추진 시 교장공모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분위기를 형성해서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원이 지원하도록 하며, 공모 교장 선정 시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과정을 강화하여 유능한 공모 교장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교장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교장 평가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평가결과 일정기준 미달 시는 공모 교장 응모 제한, 또는 교장 중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임기 중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빙교장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장공모제 임기 중이라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학교경영을 하는 교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발탁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하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소규모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평생학습 교실에 참여하는 강사비 인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활동에 희망학생 부족, 강사 수급 등 운영상의 어려움 점을 지적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강사료는 교통여

건, 프로그램 유형, 강사의 질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산촌 소규모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료 인상 등은 학교 자율로 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에서는 최대한 교내 선생님들, 교내 자원을 활용해서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시 학교장의 예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공개보고회 등의 학교행사 시 학교장을 최우선으로 예우하고 가능하면 참석한 학교장들을 모두 소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예우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연구학교공개보고회 식순을 학교장 인사말씀, 지역교육장 환영사, 교육감 격려사 등으로 대처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좌측 배치의 경우에도 학교장을 각종 교육행사 시 가장 앞자리에 배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빈소개 시 교육인사를 먼저 소개하고 기타 기관의 내빈을 후에 소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장의 예우에 최선을

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다른 행정기관들도 교육기관에 준하는 학교장의 예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외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배움터지킴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움터지킴이 중에서 퇴직교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낮은 수당과 힘든 업무 등으로 기피하거나 또 신청방법을 잘 모르는 등 이유로 퇴직 교원들의 신청이 적었으며, 희망하는 퇴직교원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사안 발생 시 법률적 대처와 관련하여 경찰 출신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의 이유로 학교 측에서 퇴직 교원의 임용을 기피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는 50% 정도를 기대해도 되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권고를 고려하여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치는 우수한 교원 출신이 보다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는 있으나 제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교육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곽정수 위원님께서 서원고와 흥덕고 기숙사 신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고등학교와 흥덕고등학교는 2003년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 정책에 따라 단기간에 신축하였기 때문에 설립 당시 충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서원고등학교와 흥덕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부지가 매우 협소해서 기숙사 등 건축물을 증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득이 기숙사 신축이 필요할 경우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이나 기존 건물의 증축, 또는 운동장에 신축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주변의 아파트나 공공숙소를 매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문제는 학교 주변에 다

수의 학생을 기숙할 수 있는 물량의 동일 장소나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려움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곽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사립중학교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안중학교는 학생 장기 수용계획을 검토할 때 학생수가 증가할 요인이 없어 향후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2008년 4월 수용계획 지침 시달시에 2009학년도부터 학년별 학생수가 5명 이하일 경우 학급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에 의거 해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인 자구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공문서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 10% 절감내역 중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 급식 체육활동,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등 교육복지 예산을 감축 대상에 넣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공약에 전용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교육재정 10% 절감에 포함된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보

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비는 예산상의 정책사업명으로 이 중에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집행되는 경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회 절감계획에 포함된 것은 각급 학교로 교부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집행되는 경상비가 대부분입니다.

교육복지 관련 사업 예산 절감은 10%가 아니며 사업별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2.2%,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0.2%,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5.1%로 절감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예산액 절감이 아니라 입찰 후 발생하는 낙찰 차액을 절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된 시설사업 추진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부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상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삼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삼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경우 현재 두 유치원의 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통합 시 각각 4학급씩 8학급 규모에서 6학급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보며, 진천읍 지역에 사립유치원은 1개원 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18개소가 있고 정원이 1,356명으로 일부 보육시설 등이 원아부족 현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진천지역 단설유치원 설립은 상산초등학교와 삼수초등학교의 합의, 진천읍내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해 등 지역 내 이건의 조정,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부웅 위원님께서 사택으로 아파트를 구입 관리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1억여원의 사택수리비는 사택개축비로써 이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급히 보수 보강 개축할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하여 2007년 11월 30일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해 위험시설물 개선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제천 봉양중학교 사택개축비 9,984만원, 영동 구룡초등학교 사택개축비 7,652만원, 진천 구정초등학교 사

택개축비 1억 52만원이 2007년 12월 21일 특별 교부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으로 이는 재해 위험요소가 있는 사택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사업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아파트를 구입하여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미입주 시 공동관리비 부담, 재산세 납부 등 관리의 어려움도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학교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부용 위원님께서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에는 5급 사무관 이상 보직을 행정 기술직에 관계없이 보임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또 다른 시·도의 행정 소수직렬에 관계없이 보직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에는 5급 사무관 이상 보직 중 일부를 행정직 또는 소수 직렬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복수직렬로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운영은 4급 1명, 5급 1명 정도입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지구에 따라 행정기구 소수 직렬을 복수로 책정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5급 이상 직위 중

행정직 또는 소수 직렬을 임용이 가능한 복수직렬을 4급은 1개 직위, 5급은 7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직과 소수 직렬 임용이 가능한 복수직렬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 중 동일 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현황은 시설과장 1명, 시설1담당 사무관 1명, 학교보건담당관 1명 등 3명이고 이 통계 중 별정직은 제외된 통계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집행청의 답변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용 위원 거수)

김부용 위원님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부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용 위원

교육위원 김부용입니다.

어린이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답변이 계셨는데요 김병우 위원님이 질문 다시 안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일선에 있을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신문을 구독할 때 담임 선생님이 배부를 해 줍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신문사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배부와 수금까지를 함께 한다는 얘기죠. 이걸 또 다른 잡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달라니까 그건 넘어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김병우 위원 의식에서 “예”)

● 김부웅 위원

그것 넘어간 것 같아서 그거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또 다른 잡무가 된다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배부하고 수금을 하는 거는.

다음 두 번째, 교원예우 문제를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하고 벗어나갔길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저는 제가 교장을 대우하고 교원을 대우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습지만은 왜 그렇게 많은 교장들을 한꺼번에 초대해 놓고 소개도 못하느냐 이겁니다. 시간관계상. 또 교장선생님들 학교업무가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닌데 별수 없이 무슨 강당 개축식에 죽들 모입니다. 그래 놓고 뒷전에 이렇게 있다가 조합장, 소방대장까지

죄 소개하는 자리에 소개도 못 받고 그냥 가십니다. 학교업무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지도를 해서 꼭 필요한 인근 사람들 이외에는 가지지 않는 게 어떨냐. 서로 교장의 체통을 지키자. 그래서 정말 인근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하는 자리라면 빛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자는 얘깁니다. 학교 운동회 하죠. 죽 모여 있습니다. 소개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요. 언뜻 생각하면 이웃 행사에 축하해 준다는 좋은 뜻도 있겠습니다만 교장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예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예우를 못 받는 풍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소방대 설립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더니 다 소개를 하고 교장들 소개를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왜 소개를 안합니까?” 그랬더니 “학교행사 가보니까 안하대요, 시간관계상 하고서” 이게 그런 행사들이 다른 사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면 자꾸 다른 답변만 나오는데, 국장님,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성영웅

교육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관계관 석에서 “예” 하고 말함)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어린이신문 등 단체 구입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또 다른 잡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단위든 학년단위든 전체든 단체 구입을 하려면 학교에서 발의하고 협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택이 되고,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수급하고 배부하고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은 없을 때보다는 늘어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학교장이 잘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원.....

(김부웅 위원 의석에서 “가정에서 보고 돈 내고 하면 안 됩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그것도 학교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구독해서 하든지 모아서 하든지 학교에서 어떤 방법을 정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대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할 거냐, 학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예우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갔을 때 교육장도 가서 자칫 망신을 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와 관련한 문제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 계통의 행사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의 인사소개시 인사소개, 장으로서의 소개를 우선해서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참여를 자제하는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웅 위원 의석에서 “강력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성영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

이들 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청에서 이번 교육행정질문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충북교육 시책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과 선수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지도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장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 지역의 체육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행복한 학습사회를 실현하고자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

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희,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2008년도사업별예산절감계획(별첨 3)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8. 5. .

의 장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김 병 우 김병우

위 원 이 상 일 李相一

의사국장 김 장 한 金長汗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8. 5. 6. ~ 5. 8.(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월 6일(화) 11:00 14: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8. 5. 6. ~ 5. 8. (3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신설학교 현장방문의 건 (의장제의)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제안설명
5월 7일(수)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현장방문 ○ 서현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	본회의휴회
5월 8일(목) 10:00	<input type="checkbox"/>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집행청 답변)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 번호	216 - 1
----------	---------

발의연월일 : 2008년 4월 28일

발 의 자 : 이상일 위원외 5인

□ 주 문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붙임 출석요구서와 같이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제안이유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중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 교육에 관한 주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교육시책에 반영토록 하고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참고사항

-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자치법 제37조 준용)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붙임 :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제2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일시 : - 2008. 5. 6.(화) 14:00 ~
 - 2008. 5. 8.(목) 10:00 ~
- 출석장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본회의장
- 출석이유 :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
- 출석대상 : -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2호 해당 공무원

□ 참고사항

○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37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교육감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범위)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육감
2.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중 도교육청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과 그의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

(별첨 3)

□ 2008년도 사업별 예산 절감계획

(단위 : 백만원, %)

분야	분류	정책사업	단위사업	'07년 예산 (A)	'08년 예산 (B)	구성비	증감 (C=B-A)	증감률	절감액 (D)	절감률	활용액 (E)	계 (F=B-D+E)
[050]	교육			1,257,359	1,370,024	100.0%	112,665	109.0%	15,211	1.1%	15,211	1,370,024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220,454	1,313,253	95.9%	92,799	107.6%	11,186	0.9%	11,186	1,313,253
		[01]	인적자원운용	844,890	908,125	66.3%	63,235	107.5%	4,135	0.5%	4,135	908,125
			[01] 정규직인건비	810,161	865,575	63.2%	55,414	106.8%	3,655	0.4%	3,655	865,575
			[02] 비정규직인건비	18,370	25,742	1.9%	7,372	140.1%	14	0.1%	14	25,742
			[03] 교원역량강화	3,603	4,186	0.3%	583	116.2%	345	8.2%	345	4,186
			[0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427	511	0.0%	84	119.7%	9	1.3%	9	511
			[05] 교원인사관리	1,126	1,555	0.1%	429	138.1%	50	3.2%	50	1,555
			[0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00	235	0.0%	135	235.0%	50	21.3%	50	235
			[07]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11,000	10,212	0.7%	-788	92.8%	5	0.0%	5	10,212
			[08] 교직원단체관리	103	109	0.0%	6	105.8%	7	6.4%	7	109
		[02]	교수-학습활동지원	43,815	62,539	4.6%	18,724	142.7%	1,346	2.2%	1,346	62,539
			[01] 교육과정개발운영	779	1,302	0.1%	523	167.1%	121	9.3%	121	1,302
			[02] 학력신장	322	375	0.0%	53	116.5%	29	7.7%	29	375
			[03] 수업지원장학활동	261	342	0.0%	81	131.0%	35	10.2%	35	342
			[04] 연구시범학교운영	1,022	938	0.1%	-84	91.8%	3	0.3%	3	938
			[05]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419	452	0.0%	33	107.9%	14	3.1%	14	452
			[06] 유아교육진흥	817	2,677	0.2%	1,860	327.7%	10	0.4%	10	2,677
			[07] 특수교육진흥	3,093	4,898	0.4%	1,805	158.4%	62	1.3%	62	4,898
			[08] 영재교육활성화	784	803	0.1%	19	102.4%	13	1.6%	13	803
			[09] 독서교육활성화	119	655	0.0%	536	550.4%	50	7.6%	50	655
			[10] 외국어교육	3,507	4,494	0.3%	987	128.1%	88	2.0%	88	4,494
			[11]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192	1,841	0.1%	649	154.4%	13	0.7%	13	1,841
			[12]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운영	289	361	0.0%	72	124.9%	22	6.1%	22	361
			[13] 전문계고교육	5,020	6,725	0.5%	1,705	134.0%	99	1.5%	99	6,725
			[14]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0,605	9,925	0.7%	-680	93.6%	62	0.6%	62	9,925
			[15] ICT활용교육	462	1,225	0.1%	763	265.2%	11	0.9%	11	1,225
			[16] 체육교육내실화	1,862	3,332	0.2%	1,470	178.9%	278	8.3%	278	3,332
			[17] 특별활동지원	5,309	13,136	1.0%	7,827	247.4%	110	0.8%	110	13,136
			[18] 수련및봉사활동	560	459	0.0%	-101	82.0%	18	3.9%	18	459
			[19] 학생생활지도	270	567	0.0%	297	210.0%	26	4.6%	26	567

분야	분류	정책사업	단위사업	'07년 예산	'08년 예산	구성의비	증감	증감률	절감액	절감률	활용액	계
				(A)	(B)		(C=B-A)		(D)		(E)	
			[20]대안교육운영지원	262	390	0.0%	128	148.9%	3	0.8%	3	390
			[21]학생상담활동지원	60	92	0.0%	32	153.3%	8	8.7%	8	92
			[22]진학진로교육	44	42	0.0%	-2	95.5%	4	9.5%	4	42
			[23]학력평가	668	863	0.1%	195	129.2%	46	5.3%	46	863
			[24]학교평가관리	55	42	0.0%	-13	76.4%	1	2.4%	1	42
			[25]학생선발배정	98	144	0.0%	46	146.9%	5	3.5%	5	144
			[26]교육연구및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	349	419	0.0%	70	120.1%	15	3.6%	15	419
			[27]교과서무상지원	5,496	5,936	0.4%	440	108.0%	197	3.3%	197	5,936
			[28]검정고시관리	91	104	0.0%	13	114.3%	3	2.9%	3	104
			[03]교육격차해소	43,880	40,472	3.0%	-3,408	92.2%	63	0.2%	63	40,472
			[01]학비지원	19,511	16,231	1.2%	-3,280	83.2%	-	0.0%	-	16,231
			[02]학력격차해소	-	-	0.0%	-	#DIV/0!	-	#DIV/0!	-	-
			[03]급식지원	18,105	20,550	1.5%	2,445	113.5%	35	0.2%	35	20,550
			[04]정보화지원	1,901	1,901	0.1%	-	100.0%	-	0.0%	-	1,901
			[05]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	3,886	795	0.1%	-3,091	20.5%	25	3.1%	25	795
			[06]교육복지투자지원	477	995	0.1%	518	208.6%	3	0.3%	3	995
			[04]보건/급식/체육활동	13,758	17,855	1.3%	4,097	129.8%	908	5.1%	908	17,855
			[01]보건관리	731	828	0.1%	97	113.3%	28	3.4%	28	828
			[02]급식관리	10,516	14,350	1.0%	3,834	136.5%	730	5.1%	730	14,350
			[03]각종체육대회활동	2,511	2,677	0.2%	166	106.6%	150	5.6%	150	2,677
			[05]학교재정지원관리	213,385	226,186	16.5%	12,801	106.0%	8	0.0%	8	226,186
			[01]학교운영비지원	117,696	124,908	9.1%	7,212	106.1%	8	0.0%	8	124,908
			[02]사학재정지원	95,689	101,278	7.4%	5,589	105.8%	-	0.0%	-	101,278
			[06]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0,726	58,076	4.2%	-2,650	95.6%	4,726	8.1%	4,726	58,076
			[01]학생수용시설	38,882	20,115	1.5%	-18,767	51.7%	931	4.6%	931	20,115
			[02]학교일반시설	4,787	7,932	0.6%	3,145	165.7%	792	10.0%	792	7,932
			[03]교육환경개선시설	17,057	30,029	2.2%	12,972	176.1%	3,003	10.0%	3,003	30,029
			[053]평생 직업교육	1,996	1,827	0.1%	-169	91.5%	120	6.6%	120	1,827
			[01]평생교육	1,330	1,253	0.1%	-77	94.2%	119	9.5%	119	1,253
			[01]평생교육활성화지원	183	226	0.0%	43	123.5%	15	6.6%	15	226
			[02]평생학습지원체계 구축운영	358	399	0.0%	41	111.5%	43	10.8%	43	399
			[03]독서문화진흥	789	628	0.0%	-161	79.6%	61	9.7%	61	628

분야	분류	정책사업	단위사업	'07년 예산	'08년 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절감액	절감률	활용액	계 (F=B-D+E)
				(A)	(B)		(C=B-A)		(D)			
			[02]직업교육	666	574	0.0%	-92	86.2%	1	0.2%	1	574
			[01]직업진로교육	666	574	0.0%	-92	86.2%	1	0.2%	1	574
			[054]교육일반	34,909	54,944	4.0%	20,035	157.4%	3,905	7.1%	3,905	54,944
			[01]교육행정일반	11,934	13,313	1.0%	1,379	111.6%	445	3.3%	445	13,313
			[01]교육정책기획관리	147	228	0.0%	81	155.1%	21	9.2%	21	228
			[02]교육정책홍보	353	460	0.0%	107	130.3%	49	10.7%	49	460
			[03]감사관리	147	200	0.0%	53	136.1%	19	9.5%	19	200
			[04]기관평가	48	48	0.0%	-	100.0%	4	8.3%	4	48
			[05]교육행정정책혁신	456	452	0.0%	-4	99.1%	48	10.6%	48	452
			[06]법무관리	69	83	0.0%	14	120.3%	8	9.6%	8	83
			[07]의정활동지원	433	480	0.0%	47	110.9%	19	4.0%	19	480
			[08]선거관리	335	-	0.0%	-335	0.0%	-	#DIV/0!	-	-
			[09]교육행정정보화	2,703	1,960	0.1%	-743	72.5%	116	5.9%	116	1,960
			[10]교육행정자료및 기록물관리	55	87	0.0%	32	158.2%	5	5.7%	5	87
			[11]민원및행정서비스 관리	70	109	0.0%	39	155.7%	9	8.3%	9	109
			[12]비상대비계획및보안	131	120	0.0%	-11	91.6%	7	5.8%	7	120
			[13]예결산관리	311	315	0.0%	4	101.3%	31	9.8%	31	315
			[14]재무관리	817	1,067	0.1%	250	130.6%	64	6.0%	64	1,067
			[15]학생수용계획	2,190	3,693	0.3%	1,503	168.6%	12	0.3%	12	3,693
			[16]사학기관지도육성	63	37	0.0%	-26	58.7%	1	2.7%	1	37
			[17]학부모및주민교육 참여확대	116	117	0.0%	1	100.9%	13	11.1%	13	117
			[18]시설사업관리	157	138	0.0%	-19	87.9%	11	8.0%	11	138
			[19]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133	119	0.0%	-14	89.5%	8	6.7%	8	119
			[20]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200	3,600	0.3%	400	112.5%	-	0.0%	-	3,600
			[02]기관운영관리	11,629	20,413	1.5%	8,784	175.5%	1,519	7.4%	1,519	20,413
			[01]기본운영비	9,224	9,945	0.7%	721	107.8%	871	8.8%	871	9,945
			[02]교육행정기관시설	2,405	10,468	0.8%	8,063	435.3%	648	6.2%	648	10,468
			[03]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391	9,966	0.7%	6,575	293.9%	591	5.9%	591	9,966
			[01]지방교육채상환	-	1,735	0.1%	1,735	#DIV/0!	-	0.0%	-	1,735
			[02]민간투자사업상환	3,391	8,231	0.6%	4,840	242.7%	591	7.2%	591	8,231
			[03]일시차입금관리	-	-	0.0%	-	#DIV/0!	-	#DIV/0!	-	-
			[04]예비비 및 기타	7,955	11,252	0.8%	3,297	141.4%	1,350	12.0%	1,350	11,252
			[01]예비비 및 기타	7,955	11,252	0.8%	3,297	141.4%	1,350	12.0%	1,350	11,252

